

한국의관광도시육성방안

199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유럽공동체에서는 '85년부터 유럽내 도시들 중 문화적인 특성이 강한 도시들을 그해의 유럽 문화도시로 육성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문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 문화도시 지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유럽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랑거리로 되고 있으며, 해당 도시들은 문화적으로 훌륭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까지 도시의 관광진흥은 기반시설, 접근성, 관광지 등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관광은 지역적 특성이 강한 문화자원, 다양한 이벤트, 관광객과 지역주민간 상호작용 등에 바탕을 둔 소프트 관광의 시대가 될 것이다.
- 따라서 관광의 잠재성이 강하고 소프트한 관광개발을 통해 한정된 시간(2~3년)내에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개발계획과 추진의지를 갖춘 도시를 '한국의 관광도시(Korean City of Tourism)'로 선정하여 관광에 대한 집중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의 홍보를 통해 국내의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관광의 질 및 관광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관광의 잠재성이 강하고 소프트한 관광개발을 통해 한정된 시간(2~3년)내에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개발계획과 추진의지를 갖춘 도시를 ‘한국의 관광도시’로 선정하여 도시의 관광을 진흥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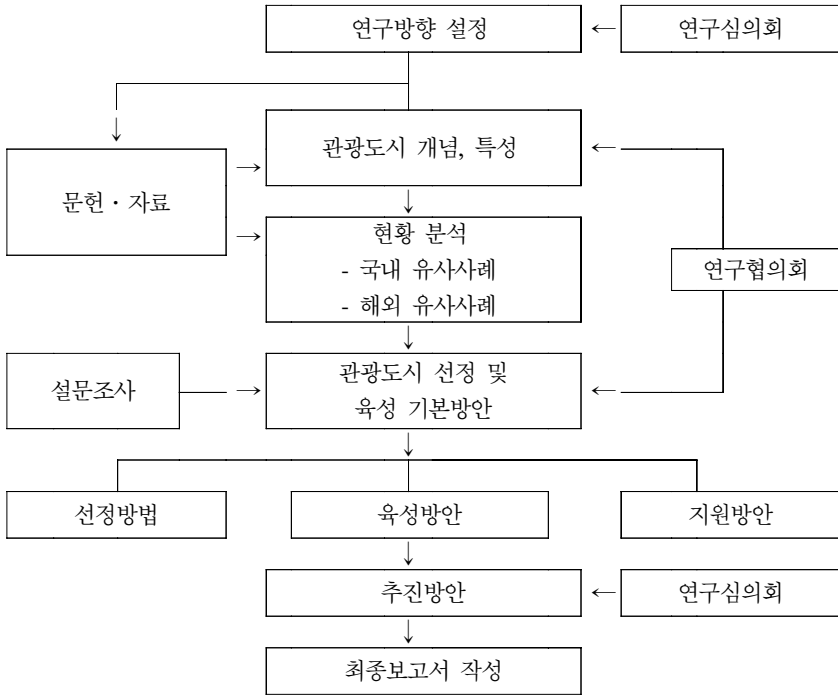
1. 연구주요내용

- 도시관광의 개념 및 특성
- 관광도시의 개념 및 특성
- 한국의 관광도시 선정방안
- 한국의 관광도시 지정 및 육성방안
- 아시아 관광도시 추진방안
- 향후 지정추진방안

2.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 및 자료조사
 - 국내외 유사사례
 - 유럽 문화도시 지정사례조사
- 전문가 의견조사
 - 관광도시 지정 기준 설정 및 육성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연구자문 및 연구협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3. 연구 진행방법



4. 연구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한국의 관광도시’ 지정 육성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된다.

- ‘한국의 관광도시’ 사업은 매년 한 도시를 올해의 방문도시로 소개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되고,
-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정비를 촉진하고 범지역민 차원의 관광객맞이 운동을 통한 관광인식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됨.

제2장 도시와 관광

제1절 도시와 관광환경

1. 도시관광의 배경

- 도시는 다기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동기를 지닌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도시는 규모나 발달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인구, 상품, 자본, 교통, 종교, 문화, 역사의 집산지로서 경제활동, 문화활동 등과 관련한 사람의 이동과 교류를 촉발시킨다.
- 특히, 도시는 전통적인 비도시지역의 관광지가 제공할 수 없는 독특하고 다양한 여가, 관광,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적, 경험적 기회를 제공해 준다.
- 역사적으로 관광은 도시관광에서 시작되었으며 21세기에도 도시관광의 매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도시관광활동은 지역적으로 전국적 관광배경속에 존재하며 둘째, 도시들은 상호간에 기능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셋째, 도시관광은 시설의 다양성, 이용자의 다양성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 최근 세계적으로 관광의 도시에 대한, 도시의 관광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이 크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관광진흥을 위한 시도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시대적 당면과제라 하겠다.

2. 도시관광의 의의

- 도시관광은 일반적으로 관광(단)지 중심형의 전통적 관광과 비교하여 볼 때,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도시관광의 진흥은 도시의 민주화, 국제화, 침체하는 도시경제의 활성화, 소멸하는 도시문화의 부활과 활력 제고, 도시환경의 정비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관광이 계절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에 도시는 계절성이 낮은 다양한 전천후 관광매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도시관광의 진흥은 기존의 시설과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모든 도시는 제각기 관광산업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관광은 다른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소득, 고용, 투자, 조세 등의 중요원천이기 때문에 도시관광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도시관광은 1차적인 도시관광자 이외에도 도시지역민의 여가, 관광,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제2절 도시관광의 개념 및 기능

1. 도시관광의 개념

- 도시관광이란 일반적으로 도시관광자와 도시의 관광대상, 관광기업, 관련정부, 도시주민과의 상호작용과 현상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여기서 도시관광자란 순수 또는 겸목적 관광으로 당해 도시 외부로부터의 방문자 및 도시내부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를 모두 포함하며, 관광대상은 도시 자체가 지니고 있는 총체적 매력, 자연 및 인문자원, 시설,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 관광기업은 도시관광자의 관광경험을 충족시켜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업체를 지칭하며, 관련 정부와 주민은 당해 도시의 정부와 거주자를 의미한다.

○ 즉, 종합적으로 도시관광이란 도시내부 혹은 도시 외부인에 의해서 도시의 각종 매력물과 편의시설 및 도시의 이미지를 관광대상으로 하여 도시내에서 발생하는 관광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도시관광의 기능

○ 도시는 한 국가의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그 자체로서 훌륭한 관광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도시내의 박물관, 공원, 극장, 유적지, 현대적 건물, 쇼핑, 음식, 위락 및 도시적 환경과 경관 등은 도시관광의 주요 매력물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역사적 건축물, 기념물 등 역사자원이 풍부한 도시는 전세계의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자연자원이나 인문자원은 없으나 인위적인 시설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올란드, 오렌지 카운티 등의 관광도시는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도시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해주고 경제적인 수입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 도시관광의 역할을 도시관광의 기능과 도시의 관광적 기능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도시관광의 기능

- 경제적 소득과 고용창출
- 문화유산의 보전 및 재창조
- 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
- 도시 재개발 및 활력 부여
- 관광은 전통적 산업구조(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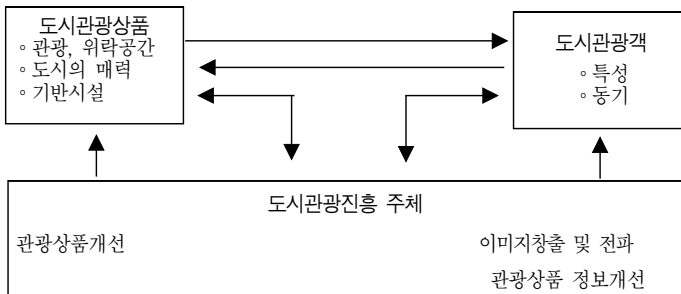
- 도시의 관광적 기능

- 관광객들이 관광목적지로 가는 ‘경유지’로서 교통 및 관광정보 제공지
- 관광목적지의 ‘배후지’로서 숙박지
- 도시내 여러 관광대상물들에 의한 위락지
- 도시민의 생활풍습 및 각종 관광이벤트로서의 기능

제3절 도시관광의 기본구조 및 구성요소

1. 도시관광의 기본구조

- 도시관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광상품과 그 상품에 대한 관광시장이 존재하여야 하고, 도시관광의 진흥을 위해서는 진흥주체가 필요하다.
- 도시관광상품은 1차적으로 교통과 숙박시설 이외에도 도시의 문화적 시설, 위락시설, 이벤트, 회의, 축제, 전시회, 박람회, 쇼핑 관광거리 등을 위한 다양한 공간의 공급과 도시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매력의 효과적 연출, 부차적으로 관광 정보안내시스템의 구축 등을 포함한다.
- 도시관광의 진흥주체는 도시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관광심리적 동기 등에 효과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도시관광상품의 전략적 이미지 창출과 경쟁적인 포지셔닝, 충실하고 동태적인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나가야 한다.
- 이때 도시관광의 진흥주체는 당해 도시의 관광기구, 기구내의 담당부서와 같은 공공기관이거나 당해도시를 포함하는 광역적 지역차원의 반관반민의 협회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법제도적 재정적 기반이 충분하여 효과적인 진흥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림 2-1] 도시관광의 기본구조

2. 도시관광의 요소

○ 도시관광의 구성요소는 도시관광객, 관광대상, 관광기업, 관련 정부와 지역주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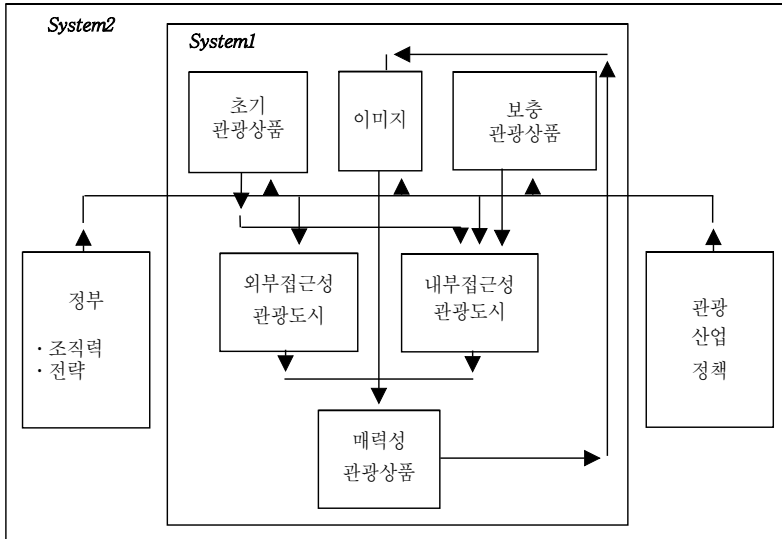
- 도시관광객: 순수 또는 겸관광목적으로 당해 도시외부로부터의 방문객 및 도시내부에서 발생하는 이용객을 모두 포함
- 관광대상: 도시자체가 지니고 있는 총체적 매력, 자연적 인문적 자원, 시설, 서비스 등을 포함.
- 관광기업: 도시관광객의 관광경험을 충족시키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업체를 의미함.
- 관련정부와 주민: 해당도시의 정부와 거주자를 각각 의미함.

○ 관광현상은 공간적으로 관광송출지와 관광목적지라는 두 개의 연쇄적 공간들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관광송출지는 주로 소득수준이 높은(대)도시지역이 되며, 관광목적지는 관광자원과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는 도시지역일 수도 있고 비도시지역(농,산,어촌) 일수도 있다.

○ 관광송출지를 불문하고 관광목적지가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이나에 따라 1차적으로 도시관광(urban tourism)과 농촌관광(rural tourism)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특징적인 차이점은 도시관광이란 복합적 기능을 배경(multifunctional context)으로 하여 도시속에서 관광이 이루어지며, 도시생활환경(urban life environment) 자체가 주요한 매력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농촌관광은 자연적자원(natural attraction)이 탁월한 곳에서 주로 형성된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부지매입비 등이 엄청나므로 비도시지역으로서 자원자원이 빈약한 곳이라도 관광휴양단지(resort complex)를 건설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Berg와 Borg, Meer(1995)는 도시관광의 구조를 관광상품 요소와 도시관광 요소로 구분하였으며 관광상품에 대한 내부적 접근성과 도시자체의 외부적 접근성이 매력성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라고 본다.



- 주: 1. 초기관광상품: 자연적 특성(경관, 기후), 역사 문화적 특성, 방문객 유인 목적으로 창출된 매력물과 이벤트 등을 포함
2. 보충관광상품: 호텔, 레스토랑, 회의장, 전시홀 등을 포함
3. 외부접근성: 공항, 기차역 등
4. 내부접근성: 교통수단의 질, 여행경비, 주차공간, 입장료, 혼잡도, 안정성, 환경, 안내정보 등

자료: L. van den Berg, J. van der Borg and J. van der Meer(1995), 「Urban Tourism」.

[그림 2-2] 도시관광의 요소 및 관계

제4절 관광도시의 개념 및 특성

1. 관광도시의 개념

가. 관광도시의 등장 배경

- 도시자체 또는 도심 반경 일정거리 이내에 관광 매력물이 다수 존재하여 자연스럽게 해당도시의 특성이나 주기능이 관광산업과 연관되어 발전하게 된다.
- 도시자체의 역사적 배경이나 물리적 환경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또한 물적, 인적 교류가 많은 지역이기에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몰려 도시가 발전된 곳이 많아지게 되었다.
- 사회변화에 따른 기존의 도시기능이 쇠퇴하여 관광이외에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경우 도시 재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관광산업에 의한 특성있는 자생적 도시로 의도적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가는 경우가 선진국에서 1970년대 이래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 이처럼 도시의 기능으로서 관광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또한 관광객이 집적하게 됨에 따라 도시에 활력을 가져다 주게 되며 또한 외지인들의 소비에 따라 도시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외지인들을 위한 제반 관광시설의 개발은 지역주민의 생활 시설 개발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 최근 세계적으로 도시의 관광, 그리고 관광도시의 의미와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도시관광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으며, 별도의 투자없이도 훌륭한 관광대상지로서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으며 도시들의 상호간 기능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독특성,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내 각 도시들의 관광산업육성이나 자원개발실태를 보면, 도시관광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 도시관광활동을 담을 수 있는 시설의 부족, 도시관광 활동 미흡 등 도시의 관광적 활용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나. 관광도시의 일반적 개념

- 관광도시라 함은 “도시자체가 지역 외부로부터의 관광객의 방문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매력과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숙박, 방문교통, 위탁, 문화, 정보, 음식, 이벤트 관련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으로써 일반도시에 비해 외래방문객이 많은 도시”라 할 수 있다.
- 또는 “도시자체가 훌륭한 관광지 또는 휴양지로서의 자원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특성화를 통하여 지역고유의 각종 민속, 문화, 관광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요 자원들에 대한 광고 및 홍보선전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관광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경영해 나가는 도시”라 할 수 있다.
- 더욱 단순화시킨 개념으로는 “관광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경영을 시행해 나가는 도시를 관광도시”라 정의할 수 있다.
- 한마디로 관광도시는 도시에 있어서 핵심적인 현상이 외래관광객을 유인하여 관광경험을 제공하는 도시라 할 수 있는데, 문화도시, 역사도시, 리조트도시, 위락도시 등과 같은 도시유형들은 관광도시의 개념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

다. ‘한국의 관광도시’의 개념

- 본 연구에서의 ‘한국의 관광도시’는 “일반적인 관광도시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도시자체가 외부로부터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충분한 매력과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도시로서 관광도시 선정을 통하여 지역의 관광진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광발전 잠재력이 높은 곳”이라고 개념 정의할 수 있다.
- 따라서 ‘한국의 관광도시’ 지정사업은 관광특성이 잠재되어 있는 도시를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집중적인 각종 지원을 통하여 보다 관광으로 인한 지역활성화를 가져오게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관광도시의 특성 및 조건

가. 관광도시의 특성

- 관광도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 대규모 관광지의 배후 지역이거나 특징적 관광자원 소재지에 위치
 - 도시에 다수의 관광 매력물이 존재
 - 광역 및 역내 교통접근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음
 - 유동 관광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음
 - 고유의 문화이벤트가 많고 유, 무형의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
 - 특성있는 회의·전시·쇼핑시설 보유
 - 지역에 관한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안내 기능 보유
 - 안내정보체계의 질적 수준이 높음
 - 친절한 서비스 체계의 확립

나. 관광도시의 조건

-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관광관련 인적자본이 풍부하여 관광산업의 유치 가능성이 커야 함
 - 관광안내정보시설, 관광교통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컨벤션 시설 등 관광기반 시설이 발달되어 있어 관광객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역사, 문화 관광시설, 위락 및 여흥시설, 관광쇼핑시설, 음식시설 등이 풍부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관광도시별 특징적 이미지를 제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문화행사, 도시축제 등 각종 이벤트가 정례적으로 개최되어야 함

제3장 국내외 사례 및 의견조사 분석

제1절 해외사례

1. 유럽의 문화도시 지정 사례

가. 개념 및 목적

- 유럽의 문화도시(Cultural Capital of European)의 선정은 유럽내 각 도시의 문화재를 보호·발전시키고 유럽인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통합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 유럽의 문화도시는 '83년 Melina Mercouri(Greek Ministe of Culture)에 의해 처음으로 주창된 문화 이벤트로서 '85년 이래 매년 유럽내 한 도시를 선정하여 EU(European Union)와 각국 정부와 지정도시의 지원, 그리고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시행되어 왔다.
- 유럽의 문화도시의 지정은 각 도시의 문화적 가치의 보전적 개발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유치를 유도하여 상당한 문화·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 유럽의 문화도시 지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제시하면 해당도시의 홍보효과를 통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증대시키고, 관광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문화도시는 예술인들의 만남과 사상의 교환장소로서 활용이 된다.

나. 지정기준 및 절차

○ 지정기준

- 도시의 규모, 인구, 역사, 재정 잠재력

○ 선정도시 자격요건

- 민주주의, 복수체제, 법치주의, 인간정의를 특성을 가진 도시
- 상임위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번갈아가며 지정

※ 선정초기에는 회원국에 한정하였으나 '92년 위원회 결의를 통해 비회원국에 대한 지정 결의

- 같은 지역내 도시에 대한 연속적 지정 불가
- 수도와 지방도시간 형평성 고려
- 특별한 해에는 복수 도시 지정 가능

○ 선정절차

- '85년도부터 매 홀수년도 마다 5~6년후의 도시를 일괄 지정
 - '93년도: '98년과 '99년의 도시 지정
 - '95년도: 2000년과 2001년의 도시 지정
- 홀수년도의 6월 30일까지 후보도시를 대신해 각국 정부에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 신청서 접수후 6개월간의 심의기간을 걸쳐 같은 해 12월 31일에 지정도시를 발표함.
- 2005년부터는 2개의 도시를 복수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EU회원국과 비회원국간 비슷한 주제의 도시를 선정토록 하여 두 도시간 협력을 유도함.

○ 신청서 구비사항

- 주제(다른 유럽국가와 협력 가능한 주제)
- 도시의 준비상황
- 문화도시 계획
- 개최도시의 관심도

다. 조직 및 예산지원

1) 조직 및 기능

- 담당조직은 EU내의 위원회인 The Council of Ministers of Culture이다.
- 이 위원회는 3개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에 맞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계획·실행하고 있다.
 - 생활예술: Kaleidoscope (living arts)
 - 문학: Ariane (literature)
 - 유산: Raphael (heritage)
-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EU의 문화에 관련된 정책 전반을 심의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프로그램에 맞도록 예산 및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 ※ 2005년 이후 위원회는 ‘European Capital of Culture’로 명칭을 바꿀 예정

2) 예산지원

- EU는 선정도시에 대해 1백만 ECU를 지원하고 있으며, EU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 3-1> EU의 예산지원 계획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TOTAL
지정도시 재정지원	2.5	1	1	1	1	6.5

자료: EU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 담당주체별 예산지원 비율
 - 문화도시의 총 소요예산은 선정국가에서 30%, 지정도시에서 50%를 담당하며 EU는 2%(총 100만 ECU)를 지원토록 함.
 - 나머지 18%는 민간부문에서 확보토록 되어 있음.

라. 선정도시 현황

- '85년부터 '99년까지 총 15개의 도시가 '유럽의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2000년은 21세기를 여는 특별한 해로 9개의 도시가 복수 지정되었다.
- 2001년부터는 2개의 도시를 복수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8개의 도시가 선정되어 있다.

<표 3-2> 유럽의 문화도시 선정현황

지정연도	지정도시	소속국가	회원/비회원	슬로건 및 주제
1985	Athens	Greece	회원	
1986	Florence	Italy	회원	
1987	Amsterdam	Netherland	회원	
1988	Berlin	Germany	회원	
1989	Paris	France	회원	
1990	Glasgow	Scotland	비회원	Arts, Museums and Festvals
1991	Dublin	Ireland	회원	
1992	Madrid	Spain	회원	
1993	Antwerp			
1994	Lisbon	Portugal	비회원	
1995	Luxembourg	Luxembourg	회원	
1996	Copenhagen	Denmark	회원	
1997	Thessaloniki	Greece	회원	
1998	Stockholm	Sweden	회원	
1999	Weimar	Germany	회원	
2000	Avignon	France	비회원	art & creativity
	Bergen	Norway	비회원	art, word & leisure
	Bolona	Italy	회원	information & communications
	Brussels	Belgium	회원	culture & city
	Helsinki	Finland	비회원	scientific and technical progress & art
	Cracow	Poland	비회원	thinking & spirituality
	Prague	Czech Republic	비회원	cultural heritage
	Reykjavik	Iceland	비회원	nature & the environment
	Santiago de Conpostela	Spain	회원	Europe & the world

<표 계속>

지정연도	지정도시	소속국가	회원/비회원	슬로건 및 주제
2001	Rotterdam and Oporto Riga and Basle	Netherland	회원	
2002	Brues and Salmanca		비회원	
2003	Graz St Petersburg		비회원	
2004	Genoa and Lille	Italy	회원	
2005	미정	Ireland	회원	
2006	미정	Netherlands on Greece	회원	

자료: EU의 인터넷 홈페이지

2. 해외의 도시관광 진흥 사례

가. 프랑스 몽뵈리예

- 지구별 주제를 설정한 복합기능의 미래형 도시로서 관광위락지구(Heliopolis)를 조성 운영하고, 매년 1,000여명의 관광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 니스에서는 지역민 생활지구와 외래객의 활동지구를 격리시키기 위한 ‘모텔 컬쳐관광지구’를 두었다.

나. 영국의 도크랜드 재개발사업

- 영국은 런던의 도크랜드(구 항만지구)의 재개발사업을 통해 친수공간(water front)을 개발하여 생태공원, 스포츠시설, 팝바, 레스토랑, 호텔 등 관광, 휴식, 문화가 융합된 도시의 오아시스 건설을 추진하였다.

다. 일본

-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 잠재유인력이 큰 지구를 국제관광모델지구로 선정하여 기반시설의 정비, 안내소·안내판·팸플렛의 개선, Good Will 가이드제, Home Visit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부록 참조).
- 또한 대도시권의 레크레이션 수요 충족을 위하여 레크레이션 도시를 지정, 숙박 휴양시설, 서비스시설, 환경보전지구, 관광거리 조성 등 기반시설 공급을 확대시키고 있다.
- 특히, 일본은 최근 11개의 정부지정도시(政命都市)를 중심으로 도시관광진흥시책을 구체화 시켜놓고 있다.
- 일본의 정부지정도시 진흥 기본방침
 - 도시의 놀이기능의 재인식과 관광진흥계획의 적극적 추진
 - 국제화에의 대응, 컨벤션, 국제교류관광의 추진
 - 관광정보네트워크의 정비
 - 도시의 개성 만들기, 도시 이미지의 개혁
 - 경과(특히 야경)의 중요성 인식
 - 관광협회와 협력사업 추진
- 일본의 주요 도시관광 진흥시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 일본의 도시관광 진흥시책

구분	진흥시책
삿쵸로시	국제관광도시의 전개, 유치전선의 확충, 사계절형 관광도시, 풍토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광역관광네트워크의 형성, 환대정신의 함양
센다이시	광역교통망의 형성, 도시경관의 형성과 관광매력의 창출, 온천기능의 재생과 관광도로의 정비, 축제·이벤트 등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 국제문화교류회관 등 컨벤션시설 확충
요코하마시	국제화의 대응, 새로운 관광매력의 창출, 기존의 관광자원 발굴과 활용, 관광네트워크의 형성, 요코하마 박람회를 계기로한 관광진흥
나고야시	특색있는 컨벤션의 유치, 컨벤션추진체제의 충실, 해외선전강화, 관광자원의 재발견 및 창조, 뉴미디어를 이용한 관광정보의 제공

<표 계속>

구분	진흥시책
가와사키시	임해부 정비기본계획 수립, 리버사이드지구 정비, CI를 통한 이미지 향상전략 전개,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광(光)의 이벤트 사업추진, 종합적 산업진흥계획
교토시	관광객 유치선전사업의 강화, 관광객 수용체계의 정비
오오사카시	쾌적하고 매력있는 공간(물, 꽃, 초록을 살린다. 문화성이 풍부한 매력을 양성한다., 매력있는 도시경관과 분위기를 창출한다), 도시환경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제고
고베시	고베관광의 특징(山,水,家)의 활용, 다각적 관광의 지향, 고베문화의 창조와 현대정신의 향상, 국제관광의 대응, 관광과 산업의 유기적 결합(산업의 관광화)
히로시마시	종합적 관광행정의 추진, 관광자원의 개발정비, 수용태세의 충실, 유치선전의 강화
후쿠슈시	생산, 생활, 학습, 놀이 기능의 조화 및 문화와 미래를 여는 관광도시(놀이문화의 창조, 건강을 창조하는 리조트, 산업과 기술의 관광화)
후쿠오카시	바다와 역사의 국제관광도시(Rec-Resort 구상, Twin-Dome 계획, 컨벤션시설 정비)

라. 덴마크 코펜하겐

- 덴마크는 1992년 관광진흥을 위한 기구인 ‘Wonderful Copenhagen Foundation’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The Ministry of Industry와 그외 5개의 기구가 합의하여 Copenhagen의 유기적 관광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 Wonderful Copenhagen Foundation은 관광진흥을 위한 중점 분야로 마케팅, 서비스(관광정보, 연구개발), 이벤트 마케팅으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관광을 촉진했다.
- 주요 진흥책으로서 Copenhagen 카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카드 하나로 1~3일간 시내의 주요 관광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Copenhagen은 '93년 1996년의 ‘Cultural Capital of Europe’으로 선정되었다.

마.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

- 글래스고우는 기반 산업의 쇠퇴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관광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경제 특성화 정책으로 극복한 대표적 도시로서 '90년의 'European City of Culture'로 선정되었다.
- 주요 관광기구로는 The Tourist Development of Glasgow를 들 수 있으며, 정책 방향은 새로운 여가문화 매력물 개발 및 발전, 주요 이벤트의 재창출 및 홍보, Glasgow관광국과 컨벤션국을 지원하는 관광 마케팅, 환경친화적 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 등이었다.
- 특히 문화시설(콘서트홀,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한 집중투자와 대규모 이벤트를 계획 및 추진하였다.
- 또한 Great Glasgow Convention Bureau를 설치하여 국제 홍보 등에 주력하였다.

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 '90년 Edinburgh Marketing(ETB) 설립하였는데 이는 최초의 공공(3개)과 민간(10개)부문의 합작 기관으로서 주요업무로는 관광발전을 위한 서비스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세부업무로는 컨벤션마케팅, 홍보, 새로운 이벤트개발 등이 있으며 담당부서로는 Marketing & Convention Bureau & Visitor Services 등이다.
- '91년 Lothian and Edinburgh Enterprise Ltd를 설립(Lothian의 경제·환경·인간의 발전을 위한 기구)하였는데 이는 국제적 레저 및 비즈니스 방문객 시장에서 Edinburgh의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품개발, 홍보, 인력교육, ETB와 다른 지역관광부와의 공조적 도시 마케팅, 도시재건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주요 관광상품은 다양한 축제를 들 수 있는데 한해 평균 130만명이 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축제로는 Fringe 축제(영국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 Military Tatto, Science 축제등 9개의 축제가 있다.

사. 함부르크

- '81년부터 관광 및 레저 활동의 꾸준한 증가로 '84년 이후 '90년 초반까지 한해 평균 4백만명의 방문이 증가되었으며, 이후 '91년에는 관광분야에서 총 27,300명의 고용창출 및 24억불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 관광분야의 대표기구로는 Tourismus Zentrale Hamburg GmbH(TZH)을 들 수 있으며, 산하기구로는 the Free and Hanseatic City of Hamburg(FHH), Hamburg Messe und Congress GmbH(HMC), Hotel & Catering, Tourist Association, Chamber of Commerce 등이 있다.
- TZH의 마케팅은 도시 관광상품의 발전, 새로운 시장의 형성, 회의와 박람회의 도시로서의 위치 확립, 비즈니스 장소로서의 도시 이미지 상승, 즐거운 관광지로서의 매력끌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아. 로테르담

- 60년대 이후 공업 및 교역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쳤으나 80년대 새로운 비즈니스 서비스공간으로 변모되어 80년대부터 도시전체를 'Waterstad(water city)'의 테마로 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한 개발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 도시의 성격상 관광은 큰 산업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나 80년대 중반부터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의 상승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 주요 관광기구로는 80년대 중반까지 'The Local Tourist Organization(VVV)'에서 주요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87년 'Revitalising Rotterdam'을 선언하며 문화와 관광, 레저 요소를 갖춘 완벽한 도시(complete town)의 건설을 시작하였다.
- '91년에는 OBR(Rotterdam City Development Corporation)이 설립되어 관광관련 상품개발, 이벤트, 마케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제2절 국내사례

1. 관광특구

가. 지정목적

- ‘관광특구’라함은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으로서 '94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 관광특구 제도의 기본 취지는 내방관광객의 관광활동이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되는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서비스와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의 기회를 다양하게 하여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다 매력있고 분위기가 좋은 일정 관광지역을 대외적으로 홍보선전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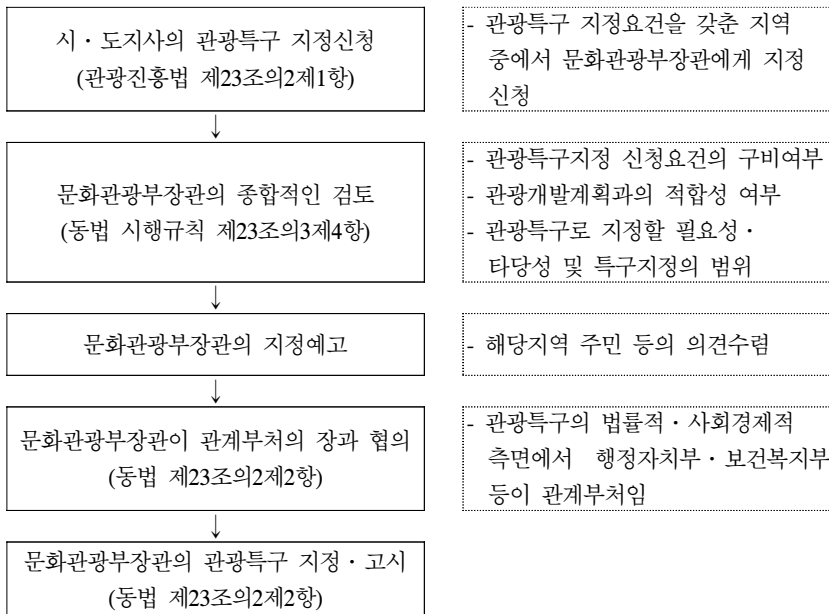
나. 지정방법

-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23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정신청은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그림 3-1] 참조).
-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요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각종 관광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일 것
 -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바다·산림·하천 또는 도로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될 것

- 위 요건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 중에서 관광거점지역으로 지정·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개소에 한하여 관광특구 지정 신청 가능(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

다. 지원사항

- 특구안의 관광사업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11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관광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7조제3항).
- 특구안의 관광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우선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중 관광시설 건설자금 및 관광시설 개보수자금에 대하여 타지역에 비해 20% 가산하여 지원)한다.
-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하여 특구지역에 대한 해외홍보를 강화한다.



[그림 3-1] 관광특구 지정절차도

라. 지정현황

- '94년 8월 관광특구가 처음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제주도, 경주시, 설악, 유성, 해운대 등 5개소가 지정되었으며, '97년 1월에는 수안보 등 12개소가 추가 지정되었다(<표 3-4> 참조).
- 이후 '97년 5월에 송탄이 지정됨에 따라 '99년 6월 현재 전국의 관광특구는 총 19개지역 2,755.194km²가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 이태원지역은 '97년 9월에 특구로 지정되었다.

2. 시범문화마을

가. 지정 목적

- 지역 고유의 특성있는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마을을 시범 문화마을로 지정, 육성하여 향토문화의 보존 계승 및 발전에 기여
- 지역 문화활동을 활성화하여 후세대 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
-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

나. 운영방침

-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마을을 현지 실태조사와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 문화관광부는 조성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
- 시범문화마을을 조성한 이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함

<표 3-4> 관광특구 지정현황

명칭	관할시도	면적(km ²)	지정시기	비 고
제주도	제주도 전역(부속도서 제외)	1,809.560	'94.8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
경주시	경상북도 시내지구, 보문지구, 불국지구	32.650	'94.8	관광단지, 시가지
설악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지역	148.584	'94.8	관광단지, 집단지설지구
유성	대전광역시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어은동, 도룡동	5.858	'94.8	엑스포 과학공원, 온천유양지
해운대	우동, 중동, 송정동	5.302	'94.8	관광지, 해수욕장, 온천, 공원
동두천	경기 동두천시 일원	0.40	'96.1	동두천시, 소요산 입구
대관령	강원 강릉, 동해, 평창, 횡성 일원	564.18	'96.1	강릉 동해시, 평창 횡성군
수안보온천	충북충주시 상모면	9.22	'96.1	수안보 온천지구
속리산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일원	43.75	'96.1	범주사 집단시설 지구
아산시온천	충남 아산시	3.71	'96.1	온양, 도고, 아산 온천지
보령 해수욕장	충남 보령시	2.52	'96.1	대천, 무창포 지역, 죽도
무주구천동	전북 무주군 설천면	7.61	'96.1	무주리조트
정읍 내장산	전북 정읍시	3.50	'96.1	내장산 집단지설지구
구 레	전남 구례군 일원	78.02	'96.1	지리산온천, 화엄사 등
백암온천	경북 울진군 일원	1.74	'96.1	온정도시계획구역
부곡온천	경남 창녕군 부곡면 일원	4.82	'96.1	부곡온천지구
미륵도	경남 통영시 일원	32.90	'96.1	미륵도, 오비도, 월명도
평택시송탄	경기도 평택시 일원	0.49	'97.5	신장 1·2동, 지산동, 송북동
서울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지역	0.38	'97.9	이태원로 인근지역

자료: 한국관광연구원 · 문화관광부 편(1999), 『'99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다. 선정방법

1) 선정기준

- 역사의 업적을 남긴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마을
- 마을의 특성있는 문화를 전승·보존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마을
- 지역 주민의 문화마을 사업추진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으며, 활성화 할 수 있는 마을

2) 선정절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대상마을을 추천 받아 서면심사 후,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자문위원회에서 선정
-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임무: 서면심사 및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상마을 선정에 자문
 - 구성: 각계 전문가(건축, 조경, 민속 및 고고학 분야 등) 3인 이내로 구성

라. 지정현황

-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시범문화마을은 37개 지정·조성되었으며 국고지원액은 총 12억1천8백만원임

<표 3-5> 시범문화마을 조성 실적

단위: 천원

년도	마을수	지원액	시범문화마을
1990	3	60,000	난설리 마을(안성군), 창동 마을(평창군), 군량 마을(청양군)
1991	6	120,000	설계리 마을(영동군), 입석 마을(김제시), 연동리 마을(해남군), 읍내리 마을(영풍군), 덕촌마을(진양군), 덕수리 마을(남제주군)

<표 계속>

년도	마을수	지원액	시범문화마을
1992	7	138,925	반구정 마을(파주시), 마제 마을(중원군), 부곡 마을(당진군), 부항 마을(완도군), 탑동 마을(강진군), 덕동 마을(영일군), 범흥마을(밀양군)
1993	4	150,000	상리 마을(홍성군), 위도 마을(부안군), 방촌 마을(장흥군), 서암 마을(의령군)
1994	4	150,000	황도리 마을(태안군), 독치 마을(진도군), 두들 마을(영양군), 명월 마을(북제주군)
1995	4	150,000	정금 마을(횡성군), 내앞 마을(안동시), 사기 마을(하동군), 진사 마을(익산시)
1996	3	150,000	원골 마을(양주군), 산우물 마을(괴산군), 장좌마을(완도군)
1997	3	150,000	실내 마을(춘천시), 원촌 마을(정읍시), 유수암 마을(북제주군)
1998	3	150,000	고추장 민속마을(순창군), 초산 마을(상주시), 방하 마을(거제시)
계	37	1,218,925	강원(3), 경기(3), 충북(3), 충남(4), 전북(5), 전남(6), 경북(5), 경남(5), 제주(3)

자료: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3. 문화의 거리

○ 문화의 거리는 일정한 테마를 중심으로 관련 업종의 집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의도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문화의 거리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감상하고 나아가 쇼핑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 전국에 걸쳐 문화의 거리로 조성된 곳은 '98년 10월 현재 73개소이다(<표 3-6> 참조).

<표 3-6> 문화의 거리 조성현황('98년 10월 현재)

지역별 (개소)	거리명	구간 (km)	위치	비고
서울 (21개소)	대학로 문화예술의 거리	2.2	혜화동~돈화문	종로구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	0.6	안국로터리~대일빌딩	종로구
	숙대앞 문화의 거리	1.1	숙대입구~효창공원 입구	용산구
	소월의 거리	3.0	왕십리로터리~성동교	성동구
	온달의 거리	2.4	능동로 군자역~건대역	광진구
	문화의 거리	1.5	경희대앞회기로변~회기동60 일원	동대문구
	영화의 거리	1.5	돈암동 4거리~정릉동	성북구
	전통문화의 거리	0.8	삼선교로터리~성북동	성북구
	강북문화예술의 거리	3.5	덕성여대앞~4.19로터리~아카데미 하우스	강북구
	문화예술의 거리	2.2	빠리공원~오목공원	양천구
	웨딩의 거리	0.7	이대역~아현역	서대문구
	가구의 거리	0.5	북아현동 135-4~775번지	서대문구
	구로5동 거리공원	0.8	우성아파트~신금로주유소	구로구
	중앙대주변 문화의 거리	0.8	흑석유수지~중앙대 정문	동작구
	낙성대 문화의 거리	1.1	낙성대입구~서울대후문	관악구
	문화예술의 거리	1.3	예술의 전당~서초역	서초구
	패션문화의 거리	3.18	성수대교입구	강남구
	정보통신의 거리	1.09	테헤란로~청담동4거리	강남구
	가구문화의 거리	0.85	강남구청사거리~영동시장사거리	강남구
	무역금융의 거리	4.46	강남역~삼성역	강남구
	선사문화의 거리	0.8	암사동선사주거지~고덕주유소	강동구
부산 (7개소)	PIFF 문화의 거리	0.39	부영극장~아카데미극장~충무동육교	중구
	테즈락 문화의 거리	1.48	부산세관~수미르공원~테즈락공원	중구
	용두산 문화의 거리	1.82	용두산공원~미문화원~백산거리	중구
	부산진구 문화의 거리	1.1	부전동유원오피스텔~범천동해화문리 학원	부산진구
	범어로 문화의 거리	2.2	범어사 경외 주차장~상마부락	금정구
	해변문화예술의 거리	2.8	동백섬 순환도로~해수욕장 순환도로	해운대구
	달맞이언덕문화의 거리	3.0	달맞이길~달맞이 언덕 일원	해운대구
대구 (1개소)	봉산문화거리	0.6	봉산동대구학원~봉산오거리	중구
인천 (3개소)	월미도 문화의 거리	0.77	월미파출소~영종선착장	중구
	남동 문화의 거리		만수동 1009번지 일원	남동구
	부평 문화의 거리	0.27	부평구명신당앞~부평시장로터리	부평구

<표 계속>

지역별 (개소)	거리명	구간 (km)	위치	비고
광주 (1개소)	예술의 거리	0.3	동부경찰서~중앙로입구	동구
대전 (3개소)	온천로 문화거리	1.0	유성호텔~계룡호텔~갑천변	유성구
	대학로 문화거리	1.0	충남대~홍인호텔~유성파출소	유성구
	은능정이 문화거리	0.25	은행동 이안경원~라자가구	중구
울산 (2개소)	문화의 거리	0.5	울산교~울산초등학교앞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1.8	예술회관~선경아파트	남구
경기도 (12개소)	나혜석,홍난파의 거리	0.3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
	성남 문화거리	0.332	분당구 수내동	성남시
	광명 문화거리	0.27	철산동 상업지구내	광명시
	평택 문화거리	0.2	문예회관(시청앞)	평택시
	송탄관광특구문화거리	0.284	송탄관광특구일원	평택시
	다산문화공원내문화거리	1.5	정약용묘역일원	남양주시
	하남 문화거리	0.8	시청앞(덕풍천변)	하남시
	화성 문화거리	2.3	화산능 주변	화성군
	연천 문화거리	0.8	문화원 주변	연천군
	대성MT 문화거리	2.5	대성국민관광지	가평군
강원도 (2개소)	양평 문화거리	0.2	군민회관 주변	양평군
	춘천 문화의 거리	1.0	춘천문화원~중앙로터리	춘천시
충북 (2개소)	강릉 문화의 거리	0.19	기업은행~세브란스약국	강릉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	0.6	장글제과~국민은행	청주시
충남 (5개소)	보은 문화의 거리	0.5	보은읍 이평리 일대	보은군
	천안 문화의 거리	0.6	아라리오조각공원~천안대로사거리	천안시
	백제 문화의 거리	2.0	무령왕릉사적지~곰나루관광지	공주시
	아산 문화의 거리	0.3	구 가나다철물~제3구획정리지구	아산시
	서산 문화의 거리	0.5	제일예식장~문화회관~도서관	서산시
전북 (1개소)	부여 문화의 거리	0.5	이화가든~청소년수련원	부여군
	역사의 거리	0.87	전동성당~경기전~오목대	전주시
전남 (2개소)	도시범 문화의 거리	2.4	갯바위~공원도로변	목포시
	왕인 문화의 거리	2.0	왕인박사 유적지 구간	영암군
	창원용지문화벨트	5.4	용호동, 중앙동 일원	창원시
	남가람 문화의 거리	2.9	진주 천수교~진주교	진주시
경남 (8개소)	시민 문화의 거리	0.35	진해소방서~신흥동아파트앞	진해시
	문화예술의 거리	1.6	남망진공원입구~여객선터미널광장	통영시
	김해문화의 거리	2.5	국립김해박물관~전하교	김해시
	문화거리	1.2	두모로타리~여객선터미널	거제시
	상림공원	일원	운림리 제3교~상림공원	함양군
	거창문화의 거리	0.5	거창교회~침추정 강변로	거창군

<표 계속>

지역별 (개소)	거리명	구간 (km)	위치	비고
경북 (2개소)	문화예술의 거리	1.4	동부사적 유적지내	경주시
	안동 문화의 거리	0.14	태사로(조흥은행~농협중부지소)	안동시
제주 (1개소)	이중섭 거리	0.36	매일시장입구~솔동산	서귀포
계	73개소			

4. 어촌체험관광마을

가. 선정 필요성 및 목표

1) 필요성

- 어촌, 어항, 유통시설 등 정부가 지원한 다양한 수산투자시설의 관광자원화 및 어촌의 관광 잠재력 개발 필요
- 어촌의 체험관광개발을 통하여 어촌마을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마을 발전 도모 필요
- 절약 알뜰형 관광추세 변화로 어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및 체험생활을 토대로 하는 녹색관광 수요 증대

2) 선정목표

- 어촌마을 환경개선과 마을 공동체 의식 고양
- 활기찬 어촌공간조성 및 어업의 소득증대

3) 선정방향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마을내 관광요소가 풍부한 지역을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선정 개발

- 선정된 마을의 기존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계절성을 탈피한 경우형에서 체류형으로 전환 실질적인 소득개발
- 경제적 이익이 직접 어촌에 환원되도록 주민자치로 체험관광 개발 논의 유도

나. 선정 및 지원방법

1) 선정방법

- 제1단계(추천)
 - 각 시·도에서 시·군별로 체험마을을 추천받아 해양수산부로 제출
 - 주민개발의욕, 독창성 등 다양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검토
- 제2단계(선정 및 지원)
 - 시·도별 또는 해역별로 체험관광마을 선정
 - 체험관광사업추진을 위한 준비 및 실행계획 지도
 - 자문단 구성: 해양수산부, 시·도, 해양수산개발원, 여행사 등(지역실정에 적합한 관광상품개발 자문 및 활성화 방안 등)
 - 마을사업추진단 구성 지도: 어촌계장, 어업인후계자, 부녀회장, 마을발전위원장등 직능별 대표
 - 선정마을별 관광상품 개발지원
 - 체험관광 지역별, 시기별 상품내용 및 마을별 연계성 등
- 제3단계(홍보 및 실행)
 - 어촌체험관광마을 선정배경, 체험관광내용 및 마을소개 홍보
 - 관광객 어촌마을 유치 방문, 어촌체험관광 실행 추진
- 제4단계(환 류)
 - 어촌체험관광개발 참여기관, 단체 및 마을대표 등과 함께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와 반성 논의
 - 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발
 - 체험마을 수범사례 전파, 추가선정 및 지원방안 검토

2) 체험관광 프로그램

<표 3-7> 체험관광 프로그램 현황

구분	자원명	관광활동	참여주체
도입	방문객	• 어민회관, 어촌계 사무실등 이용	어촌계
	안내센터	• 관광객상대 숙식편의, 여가활동 등 다양한 정보제공	
직접	어업체험	• 체험어장, 수산물채취, 어선승선조업참여, 어선의 구조 및 수리과정 참여, 어류유통관찰, 구매	개인
소득 자원	민박	• 실질적 어촌실정 체험	개인
		• 콘도형 민박 등 다양한 민박시설 이용	
	특산물판매	• 마을자체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지역특산물 판매	어촌계
		• 주문 및 우편판매 가능 유도	
	기암괴석	• 유어선등 이용 어촌의 수려한 자연경관 감상	마을전체
간접 소득 자원	마을경관	• 방파제, 몰양장, 등대 방문감상	"
		• 마을안내관 및 주요시설 위치도 설치	
	감상	• 마을 여러 지점에서 조망되는 다양한 경관감상(주거 및 바다경관의 파노라마)	"
	전통문화	• 풍어제, 당제 공연감상	
	체험	• 당집, 당목방문 및 소원빌기	
		• 마을문화재, 역사적 인물 사건, 전통풍습, 고목, 전설등 안내설명	

다. 1999년 사업추진

1) 추진과정

- 체험어촌마을 선정 작업추진('99. 1~5월)
 - 지방자치단체에 체험마을 선정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추천
 - 추천된 체험마을의 자원성, 독창성 등의 각종 요건을 검토
 - 시·도별 또는 해안별 선정 추진
- 체험어촌마을 선정 확정 및 홍보('99. 6~7월)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체험어촌마을 선정 확정 통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체험어촌마을 주민대표 선정 등 협조 요청
 - 어촌 체험관광마을 선정추진에 관한 언론 홍보

- 어촌체험관광 홍보유치 및 실행('99. 7~12월)
 - 해양수산부 지정의 관광여행사 주관으로 관광객 모집 어촌체험 유도 및 세부 진행사항 지도
- 성과와 반성을 통한 지속적 발전방향 모색('99. 8~12월)
 - 정부와 마을대표간 수시 협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 지역여건에 적합한 관광상품개발지원
- 어촌체험관광마을 지원 및 확대 검토('99. 11~12월)

2) 선정현황

○ 해양수산부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마을내 관광요소가 풍부한 지역을 대상으로 어촌마을 환경개선과 어업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1999년부터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5개소의 관광마을이 지정되어 있다.

- 어촌체험관광마을 선정현황('99년 10월 기준)

구 분	선정마을
어로체험	제주도 북제주군 고산마을
양식체험	충청남도 서천군 송석마을
갯벌체험	경기도 안산선감 18통마을
스킨스쿠버	경상북도 영덕 대진마을
조업체험	강원도 삼척시 장호 1리

라. 예산지원 및 육성추진

- 선정마을에 대한 중장기 지원육성을 위한 예산확보 추진
- 1999년 예산지원: 총예산 20억중 10억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됨
 - 재원구성비: 정부 50%, 지자체 30%, 지역주민 20%
- 선정계획(중장기 계획)

계	1999	2000	2001~2003
25개소	5	5	15

5. 기타 사례

가. 생태도시(Eco City)

1) 개념 및 주안점

- 생태도시의 개념은 도시의 구조 및 기능이 환경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으며, 시민 개개인의 자각에 기반을 둔 환경배려가 잘 되어 있는 도시를 말한다.
-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 자원의 순화적 이용과 녹지조성 등을 중요하게 다룬다. 에코시티폴리스로 명명되기도 한다.

2) 사례

- 일본 고베시의 인간·환경도시선언: 기본 목표는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공간을 창조, 도시내에서 물질순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여유있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조하고, 환경과 부드럽게 어울리는 생활과 생산활동을 전개할 것 등이다.
- 일본 시가현의 환경보전시범도시계획: 환경에 순응된 생활, 생물과의 공생, 적절한 물질순환으로 설정해 놓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성공적인 도시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추상적인 비전 제시가 많아 사회구조적인 부문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 독일의 카셀(Kassel): 헤센(Hessen)주 북부에 위치한 인구 20만의 중소도시로서 전체면적의 약 60%가 공원으로 구성되어 녹지가 풍부하고 생태단지와 노면전차가 유명한 환경도시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포항시의 환경보전시범사업계획과 용인군의 환경보전시범사업이 있으며, 부산광역시에는 1995년 9월 국내 최초로 지역환경보전 실천계획인 『녹색도시, 부산21(부산아젠다21)』을 발표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1995년 12월 향후 2005년까지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환경비전21을 확정발표한 『생태도시조성 국가기본계획』이 있다,
 - 생태도시조성 국가기본계획에 따르면, 1단계(97년~2000)에서는 시범사업(5~

6개 도시정도)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2단계(2000~2011)는 전국 주요도시중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 추가대상지역을 10개 정도 선정하여 실시하고 3단계(2011년 이후)는 전국 도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나. 어메니티 도시(Amenity City)

1) 개념 및 주안점

- 어메니티라는 용어는 산업혁명기의 영국도시에서 과밀한 주거환경과 비위생적인 생활조건 때문에 코로나 병으로 쓰러져 가는 노동자들을 비참한 상황에서 구하기 위한 실천사상에 기초하여 사용된 것으로 처음에는 공중위생의 개선에서 시작하여 주거환경, 나아가 포괄적으로 근대도시계획의 목표로까지 확장되었다.
- 어메니티 도시란 인간이 도시의 장에서 개성적인 생명체로 생존하고 생활해 가는 데 불가결한 쾌적함을 창조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자연·역사·문화·안전, 심미성·편리성이 갖추어지고 종합적인 인간의 도시다움과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 경관, 역사·문화, 주거환경, 근로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도시미관이란 측면에 치중한다.

2) 사례

- 일본에서는 1970년대 후반 들어 도시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자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어메니티타운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는 주로 거리미관의 향상을 독자적 사업으로 정하여 풍요로운 마을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이나 하천, 도로조성 사업을 벌이는데 치중하여, 환경행정적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실행수단은 마련되지 않았다.
- 그러나 도시주민의 의향과 선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도시환경지표’를 만들고 도시와 지역의 환경상을 제시한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의 일부로서 각 도시차원에서 자치단체별로 지역환경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실행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3절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 관광도시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관광도시 선정기준, 선정도시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나. 조사방법 및 조사시기

- 조사대상: 전문가 120명(유효표본 59매, 49.2% 회수율)
- 조사방법: 임의표본추출
- 조사시기: 12월 15일~25일

다. 조사자 일반사항

구 분		빈도(명)	구성비(%)	비고
소속기관	정부(투자)기관	26	49.1	평균 근무년수 8.5년
	관광산업계	7	13.2	
	관련협회	3	5.7	
	학계	8	15.1	
	연구소	9	17.0	
	계	53	100.0	
	무응답	6	-	
근무년수	5년 이하	28	53.8	
	6년~10년	11	13.5	
	11년~15년	8	15.4	
	16년~20년	3	5.8	
	21년 이상	6	11.5	
	계	56	100.0	
	무응답	3	-	

2. 주요분석내용

가. 관광도시 선정대상 및 선정방법

1) 선정대상에 대한 의견

○ 관광도시 선정대상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시’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3.1%를 차지하였고, ‘기초자치단체 전체’가 39.7%, ‘기초자치단체 중 시와 광역시’가 12.1%로 나타났다. 기타로 재정자립도가 두 자리수 이상인 시·군·구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3-8> 관광도시 선정대상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구성비(%)
기초자치단체 중 시	25	43.1
기초자치단체 전체	23	39.7
기초자치단체 중 시와 광역시	7	12.1
기타	3	5.2
계	58	100.0
무응답	1	-

2) 선정방법

○ 관광도시를 선정하는 데 적합한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 ‘전문평가단 구성에 의한 직접조사와 간접조사의 병행실시’가 75.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전문평가단 구성에 의하여 직접조사(후보지역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한 평가’가 17.2%, ‘전문평가단 구성에 의하여 간접조사(후보지역의 관광도시육성계획서 검토)를 통한 평가’가 6.9%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관광도시 선정방법

구분	빈도	구성비(%)
전문평가단 구성에 의한 직접조사와 간접조사의 병행실시	44	75.9
전문평가단 구성에 의하여 직접조사 (후보지역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한 평가	10	17.2
전문평가단 구성에 의하여 간접조사 (후보지역의 관광도시 육성계획서 검토)를 통한 평가	4	6.9
계	58	100
무응답	1	-

나.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평가기준

○ 관광도시 평가기준에서 평가 대항목과 평가 소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평가 대항목에서 ‘매력성’이 평균 24.2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험제공(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21.03, ‘잠재성’이 19.03, ‘시설구비(기반시설포함)’가 17.94, ‘진흥의지’ 16.12점 순으로 나타났다.

○ 대항목에 대한 기타의견으로 지역경제성, 지역주민 친철도, 성장가능성, 주변 여건, 국제성, 담당공무원 업무성취능력, 지역별 균형안배 등이 평가기준으로 꼽혔다.

○ 평가 소항목의 경우 매력성에서 ‘관광지, 관광자원’이 평균 38.82로 1위를 차지하였고, 경험제공(볼거리, 먹거리, 살거리)에서는 ‘이벤트, 컨벤션 개최’가 29.91, 시설구비(기반시설포함)에서 ‘관광숙박, 컨벤션 시설’이 34.30, 진흥의지에서 ‘관련 예산편성’이 37.87, 잠재성에서 ‘역사, 문화성’이 36.75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 3-10> 관광도시 평가기준

평가 대항목	평균	구성비(%)	평가 소항목	평균값	구성비(%)
매력성	24.26	22.1	도시의 이미지	26.91	24.8
			시설(문화시설, 위탁시설 등)	30.91	28.5
			관광지, 관광자원	38.82	35.8
			기타	11.92	10.9
			계	-	100
경험제공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21.03	19.2	이벤트, 컨벤션 개최	29.91	27.2
			여행상품 개발	24.18	22.0
			특산품 등 쇼핑상품 개발	23.64	21.5
			향토음식의 개발	20.56	18.7
			기타	11.67	10.6
			계	-	100
잠재성	19.03	17.3	역사, 문화성	36.75	32.3
			자연성	30.48	26.8
			자원성	30.49	26.8
			기타	16.11	14.1
			계	-	100
시설구비 (기반시설포함)	17.94	16.3	관광숙박, 컨벤션 시설	34.30	30.0
			안내정보, 관광편의시설	28.27	24.7
			접근성(관광교통시설)	33.69	29.5
			기타	18.08	15.9
			계	-	100
진흥의지	16.12	14.7	관련 예산편성	37.87	33.8
			관련조직 구성	25.78	30.0
			사업추진의지	32.96	29.4
			기타	15.45	13.8
			계	-	100
기타*	11.43	10.4			
계		100			

주*: 지역경제성, 지역주민 친철도, 성장가능성, 주변여건, 국제성, 담당공무원 업무성취능력, 지역별 균형안배

2)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

○ 관광도시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을 보면, 소항목이 하드웨어 부분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소프트 부분의 평가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물리적 시설이나 기존상태(매력성, 경험제공, 시설구비)에 중점을 둘 경우 대도시위주의 선정이 우려된다고 보았으며, 양적인 수치평가보다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또한 관광도시 지정시 테마성 부여 유형에 맞는 평가항목 개발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접근시설 및 인프라 구축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주변도시와의 연계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대항목과 소항목에 대한 기타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3-11> 관광도시 선정기준 기타의견

평가 대항목	평가 소항목	점수배분	계
성장가능성	관광객수	30	100
	조직기반	30	
	관광시설	20	
	주민참여도	20	
국제성	지역주민친절도	25	100
	시설의 국제 표준성	25	
	전문성	25	
	외부기업 호감성	25	
담당공무원 업무성취능력	담당공무원 전문성	40	100
	담당공무원 업무실적	30	
	담당공무원 의식	30	
지역별균형안배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배분	70	100
	지역특성	30	
주변여건	주변 교통 연계성	60	100
	주변 관광지 연계성	40	
지역주민친절도	지역주민친절도	100	100

다. 관광도시 지원방안

1)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지원

○ 선정된 관광도시를 효과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해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중요도 순으로 조사한 결과, ‘재정지원’이 1순위를 차지하였고, ‘행정지원’, ‘홍보지원’, ‘노하우 지원’, ‘세제지원’,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인력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지식정보 지원이 조사되었다.

<표 3-12>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지원 항목 중요도

순위	구분
1	재정지원
2	행정지원
3	홍보지원
4	노하우지원
5	세제지원
6	기타(인력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지식정보 지원)

2) 재정지원 유형

○ 관광도시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의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정부의 기금지원을 통한 시설 및 상품개발지원’이 58.8%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관련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선정하여 자금지원’이 21.6%, ‘공공기관(관광공사 등)과의 공동투자를 통한 자금 지원’이 11.8%로 조사되었다. 타부처의 예산과 공동으로 지원, 중앙+정부+민간기업이 지원, 장래성·사업성이 인정되는 단체나 업자에 벤처자금 등의 지원이 기타 의견으로 나타났다.

<표 3-13> 재정지원 유형

구분	빈도	구성비(%)
정부의 기금지원을 통한 시설 및 상품개발지원	30	58.8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관련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선정하여 자금지원	11	21.6
공공기관(관광공사 등)과의 공동투자를 통한 자금 지원	6	11.8
기타(타부처의 예산과 공동으로 지원, 중앙+정부+민간기업이 지원, 장래성·사업성이 인정되는 단체나 업자에 벤처자금 등의 지원)	4	7.8
계	51	100
무응답	8	-

○ 선정된 관광도시의 재정지원의 바람직한 총규모에 대한 조사에서 100억 이상이 평균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억~100억 미만이 29.8, 10억~30억 미만이 17.5, 30억~50억 미만이 10.5, 10억 미만이 5.3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14> 재정지원의 총 규모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구성비(%)
10억 미만	3	5.3
10억~30억 미만	10	17.5
30억~50억 미만	6	10.5
50억~100억 미만	17	29.8
100억 이상	21	36.8
계	57	100
무응답	2	-

3) 세제지원

○ 선정된 관광도시에 대한 지원중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의 74%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26%가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표 3-15> 세제지원의 필요성

구분	빈도	구성비(%)
예	37	74.0
아니오	13	26.0
계	50	100.0
무응답	9	-

○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세제지원이 가능한 유형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한 자의 29.7%가 ‘관광사업체 및 개발자에 대한 세제감면’을 들었고, 13.5%가 ‘지방세 및 국세의 감면’을 들었다. 또한 ‘특소세 및 농특세, 교육세 등 관광진흥을 위한 과감한 세제지원’, ‘선정된 관광도시 전체 업종에 대한 세제감면 지원’,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시설비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이외에 다양한 세제지원이 요구되었는데, 직접세 및 간접세의 인하, 취득세와 등록세, 법인세, 면허세, 부가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일정부분 지원, 농지전용 및 각종 행위 제한시 개발부담금 감면, 외래객 유치 실적에 따른 각종 면세제 도입, 국제 관광기반시설 개발 및 시설 개·보수에 따른 재투자시 일정기간 세금감면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세제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서는 ‘실효성이 없음’, ‘특혜 시비 논란’, 관광특구 제도와 같이 ‘당초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관광산업에 대한 지나친 예외 조항 신설은 ‘해당부처와 마찰 가능성’, ‘세제지원의 실질적인 혜택 미비’, ‘관광도시지정 목적상 불필요’, ‘조세정책에 불필요한 혼란 초래 우려’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4) 행정지원

○ 관광도시 진흥을 위한 행정지원 방법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전체의 54.9%가 ‘시설 개보수관련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일괄처리 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9.4%는 ‘각종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선정된 당해년도에 한함)’에 응답하였다. 또한 관광도시 육성사업에 대하여 ‘행정부서에서 인허가 업무대행’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11.8%를 차지하였다. 행정대행을 민간단체에 위임하자는 의견도 조사되었다.

<표 3-16> 행정지원 방법

구분	빈도	구성비(%)
시설 개보수관련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일괄처리 시스템 도입	28	54.9
각종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선정된 당해연도에 한함)	15	29.4
관광도시 육성사업에 대하여 행정부서에서 인허가 업무대행	6	11.8
기타	2	3.9
계	51	100.0
무응답	8	-

5) 홍보지원 방법

○ 관광도시 진흥을 위한 홍보지원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관광공사의 해외 홍보자료에 선정된 관광도시 홍보’와 ‘여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도시 설명회 지원’이 27.7%로 동등하게 나타났고, ‘관광공사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지원’이 21.3%, ‘지도 및 달력 등 홍보자료 제작지원’이 8.5%를 차지하였다.

○ 기타 의견으로 위의 네가지 방법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외 다양한 홍보채널 활용, 전국방송 아침시간 홍보 및 여행관련 웹사이트, 구체적 network망을 이용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관광도시 홍보기금 조성을 통한 홍보·판촉 지원 등이 조사되었다.

<표 3-17> 홍보지원 방법

구분	빈도	구성비(%)
관광공사의 해외홍보자료에 선정된 관광도시 홍보	13	27.7
여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도시 홍보	13	27.7
관광공사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지원	10	21.3
지도 및 달력 등 홍보자료 제작지원	4	8.5
기타	7	14.9
계	47	100.0
무응답	12	-

마. 파급효과

○ 관광도시를 선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 지역주민, 기업, 관광객에 대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5점 척도(1: 매우크다, 2:크다, 3:보통, 4:적다, 5: 매우적다)로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도시 이미지 제고’가 파급효과로서 가장 큰 효과로 나타났으며, 정부에서는 ‘지방관광 촉진 효과’, 해당 지역주민에서는 ‘지방의 자긍심 제고’, 해당 지역내 기업에서는 ‘투자에 대한 자긍심: 지역발전 도모’, 관광객에서는 ‘지방의 독특한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의 효과가 클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0> 항목별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구 분	내용	평균값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상)	도시 이미지 제고	1.54
	도시의 활력 제고	1.80
	지역경제 제고	1.96
	관련 시설 개선 및 확충	1.83
	정부의 재정지원	2.06
정부 (문화관광부)	지방관광 촉진 효과	1.76
	관광수용태세 구축 계기	2.00
	관광상품 개발계기	2.09
	지방도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	2.04
해당 지역주민	지방의 자긍심 제고	1.69
	주민소득 증대	2.20
	지역 생활관광환경 개선	2.08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2.15
해당 지역내 기업	사업활성화를 통한 수익증대	2.13
	투자에 대한 자긍심: 지역발전을 도모함	1.98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기회	2.02
	기업의 홍보효과	2.23
관광객	지방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1.85
	양질의 관광 서비스 제공받음	2.00
	선택의 다양성(다양한 관광상품)	2.06
	문화적 이벤트의 참여기회 확대	2.00

제4장 관광도시 선정 및 육성방안

제1절 선정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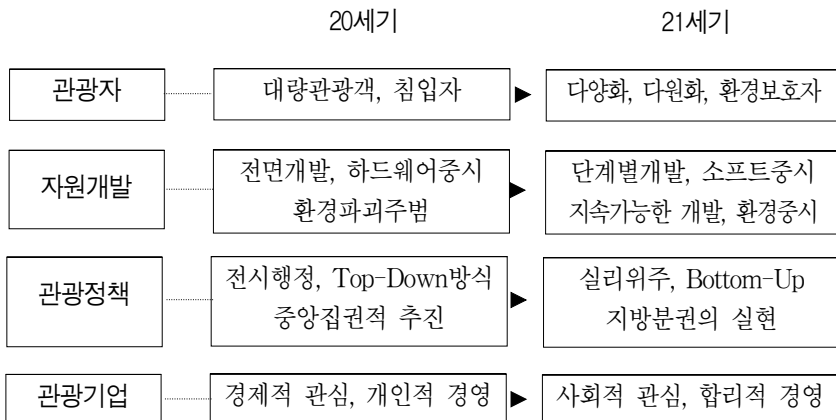
1. 필요성

-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광도시의 육성은 기반시설 및 접근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관광지 및 관광시설 개발·확충 등과 같은 물리적 시설개발 위주의 하드웨어 부문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한 상품개발, 편의서비스 개선, 현대의식의 개선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해서는 등한시 해왔다.
- 그러나 21세기 관광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의하여 각 부문별로 지역적 특성이 강한 문화자원, 다양한 이벤트, 관광객과 지역주민간 상호작용 등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그림 4-1] 및 [그림 4-2] 참조).
- 따라서 21세기형 관광개발접근을 통하여 도시가 지닌 관광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한정된 기간(2~3년)안에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개발계획과 추진의지를 갖춘 도시를 ‘한국의 관광도시(Korean City of Tourism)’로 선정하여 관광에 대한 집중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집중홍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 촉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관광의 질 향상 및 관광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관광도시’ 선정사업은 도시발전이 주로 관광산업에 의존해서 촉진될 가능성이 높은 도시를 선정·육성함으로써, 해당 도시 발전 및 주변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함이 필요하다.
- ‘한국의 관광도시’ 지정제도는 지구, 지역, 단지 차원에서 일정지역을 지속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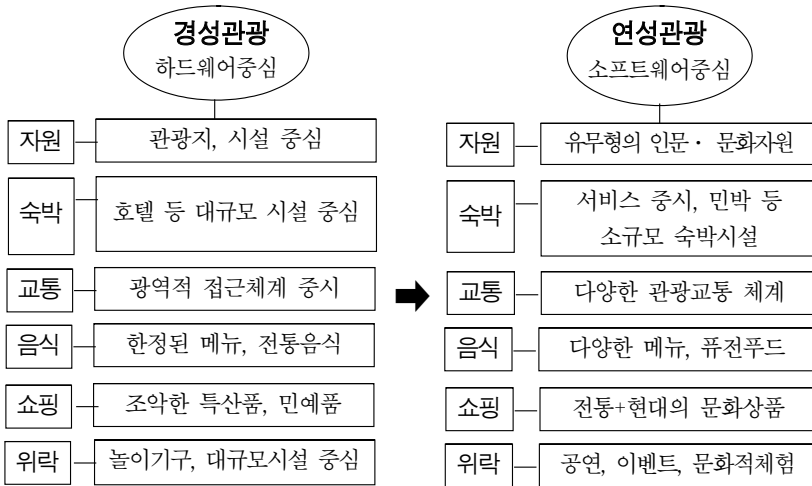
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접근이 아니라 특정한 해에 관광도시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선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의적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의 관광도시’의 선정은 해당 도시는 물론 정부, 지역주민, 관광산업체, 관광객 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하다.

- 해당도시: 관광도시 선정을 통하여 도시의 관광홍보 계기가 되고 관광객 유치 촉진, 관광을 통한 지역개발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
- 정부: 지방의 소도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국제화 촉진, 다양한 관광진흥 정책 수단 개발, 지방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함
- 지역주민: 경제적 수익증대 계기 및 지역주민의 애향심 증대 생활관광환경 개선의 기회로 작용
- 관광산업체: 지역의 인지도 제고로 기업 수익성 제고, 지역의 특성화를 통하여 기업의 특성 강화 계기
- 관광객: 명소개발을 통하여 목적지 선택의 다양성 제공, 다양한 관광경험 기회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그림 4-1] 21세기 관광패러다임의 전환



[그림 4-2] 관광도시의 부문별 패러다임의 전환

2. 선정목적

○ 도시의 경영에 있어서도 마케팅 기법을 적용하여 도시의 고유 특성을 살려 상품화하고 주로 많이 내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용객을 끌어들이고 또한 지역소득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경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도시에 매력성을 부여하고 도시활성화를 가져오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부는 이러한 도시 마케팅 정책의 일환으로 관광잠재력이 높은 도시를 ‘한국의 관광도시’로 지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도시관광이미지 제고 및 관광에 대한 인식 확대: 주변관광지의 관광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수행 및 관광지명도 향상
- 도시의 유인력 제고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촉진(볼거리 제공, 국내외 집중홍보)
- 도시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상품개발 계기(이벤트, 향토음식, 기념품 등)
- 해당 도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관광산업 발전 도모)
- 해외에 한국의 도시들에 대한 매력성 홍보 및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

- 관광서비스 질 향상 및 문화·예술 진흥 계기 마련
-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관광의 질 향상

3. 지정제도 운영의 기대효과

○ ‘한국의 관광도시’ 지정제도의 운영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지역주민, 기업체 그리고 관광객에게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표 4-1> 참조).

<표 4-1> 관광도시 지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구 분	파급효과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상)	도시 이미지 제고(※그해의 관광도시로서의 명성)
	도시의 활력 제고
	관련 시설 개선 및 확충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제고
	정부의 재정지원
정부 (문화관광부)	도시내로의 인구유입
	21세기형 지역관광모델 제시
	지방관광 촉진 효과
	관광수용태세 구축 계기
	지방도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
해당 지역주민	관광상품 개발계기
	지방의 자긍심 제고
	지역 생활관광환경 개선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주민소득 증대
해당 지역내 기업	투자에 대한 자긍심: 지역발전을 도모함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기회
	사업활성화를 통한 수익증대
	기업의 홍보효과
관광객	지방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양질의 관광 서비스 제공받음
	문화적 이벤트의 참여기회 확대
	선택의 다양성(다양한 관광상품)
	국민해외여행의 국내관광 전환 유도

*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배치

4. 유사제도와외의 개념 비교

○ ‘한국의 관광도시’ 지정제도와 유사한 문화관광부와 관련 있는 제도를 살펴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광특구, 관광권역, 관광단지 등이 있다. 이외에 7대 문화관광권진흥계획에 의한 문화관광거점지역은 법적인 제도는 아니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지구제도는 '99년 12월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새로 규정되었으며, 문화마을은 문화관광부에서 91년부터 98년까지 국고지원사업으로 시행해온 사업이다. 이외에 시범도시 지정·지원제도가 도시계획법의 개정(1999년 12월)에 의하여 마련되어 도시의 특성있는 개발을 위한 근거가 되고 있다(관광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등).

○ 이들 관련 제도에 대한 현황 및 특성은 다음<표 4-2>와 같다.

- 관광특구는 외래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관광진흥법 제2조 11항)으로서 일정구역을 설정하여 지정하였음. '99년 말 전국에 19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음
- 관광권역은 전국을 5대권 24개 소권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특성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에는 권역계획수립 요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음.
- 문화관광거점지역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서 문화관광거점지역 평가요인에 의하여 선정하여 관광기반여건 개선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 여기서 문화관광거점지역이란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문화, 예술, 역사, 자연, 위락 등 관광매력이 많은 1개 또는 2개 내외의 시·군·구 단위 공간으로서 관광객 유치증대를 통한 관광외화획득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투자로 관광기반여건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지역을 지칭함. 문화관광거점지역은 법규정에 의한 제도가 아니라 외래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및 상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임.
- 관광단지란 일정 면적을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민간 혹은 공공에 의하여 개발되는 관광시설지임.

<표 4-2> 관광관련 지정제도의 현황

구분	개념 및 목적	관계법	지원제도	기타
관광특구	-개념: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	- 관광진흥법 제2조 11항	-외국인투자촉진 지역으로 지정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의 일부 규정 적용 배제 -관광진흥기금 우선 지원, 해외홍보지원	-
문화관광거점지역	-개념: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를 통한 관광외화획득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투자로 관광 기반여건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지역	-법적조항 없음	-국고보조금	7대 문화관광권 계획에 의거
관광권역	※ 계획수립대상로서의 요건만 제시	- 관광진흥법 제47조, 제49조	-없음	-권역계획수립 요건에 대하여 규정
관광단지	-개념: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	-관광진흥법 제2조 7항	-민간투자법상 사회간접자본시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 부가세의 50/100 세액감면	관광개발대상지역
문화지구	-별도의 개념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단, 지구 지정 대상에 대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음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2	-없음	-도시계획법에 따라 조례로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시범도시	-지정목적: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계획법 제5조	-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 등
문화마을	-지정목적:지역고유의 특성 있는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마을을 지정육성하여 향토문화의 보존 계승 및 발전에 기여	-법적조항 없음	-매년 3개소를 지정하여 1개소당 5,000만원의 국고지원	'91년부터 '98년까지 시행
관광도시	-지정목적:도시의 고유특성을 살려 상품화하고 국내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를 하고 지역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제49조	-국고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홍보·마케팅지원 -운영노하우 지원 등	※ 현재 제도 검토중임

-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관광도시 제도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관광특구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관광특구제도는 일정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토대로 하여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그 효력은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지속되는 방식이다.
- 반면, 관광도시 지정제도는 시(혹은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지정되, 어느 한 해에 ‘방문의 도시’로 지정하여 1년동안 지정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광도시의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도시별 특성화된 관광을 육성하여 지역진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4-3> 관광도시의 유사제도 비교

구분	관광특구	문화관광거점지역	관광도시
목적	-관광편의를 제고하고 관광기회를 다양하게 하여 외래객의 유치 촉진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관광지역을 집중 육성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	-관광잠재력이 높은 도시의 지원을 통하여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육성 -도시의 관광진흥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증대 -도시 마케팅 정책
범위	행정단위별 지정범위가 아님. 규칙에서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음	시·군·구의 1~2개	시(혹은 시·군·구)
법제도	관광진흥법	적용안됨	사업으로서 법적인 규정없이 시행가능
지정주기	-지정요구시에 심의 지정 -한번 지정으로 지속성	-7대문화관광권 계획에 의하여 선정됨 -지속성은 없음	-1년에 한번 지정 -1회성
주안점	-지정지역내 산업 육성	-관광기반시설 확충지원	-‘한국방문의 해’ 지정과 같이 특정 연도에 특정도시에 대한 관광 관련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여 도시의 관광 촉진 -새로운 접근을 통하여 21세기형 도시관광진흥방안 제시

제2절 관광도시 선정방안

1. 관광도시 선정권자 및 선정과정

가. 선정권자

- ‘한국의 관광도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선정 및 지정하도록 한다.
- 관광도시의 선정 및 지정은 독자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단독에 의하여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현재 도시계획법상 ‘시범도시 지정·지원’ 규정이 있음).
- 현재 고려되고 있는 지정제도는 도시의 하드웨어적 시설개발을 위한 제도나 지속적으로 관광도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로서가 아님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 특히, ‘한국의 관광도시’ 지정제도는 도시의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상품개발 촉진, 관광이벤트 촉진, 관광서비스 제고 등의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이며, 선정되는 당해 연도에 한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 규제적인 제도가 아님으로 문화관광부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신청권자 및 신청과정

- ‘한국의 관광도시’의 지정신청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한다. 이때, 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도시육성기본계획서’를 전문가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신청하도록 한다.
-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서류를 평가하는 과정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다.
- 대안1: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1차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2~3개소로 축소된 후보도시를 문화관광부에서 2차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 대안2: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직접 문화관광부에서 평가하는 방법

○ 대안별 평가

구분	장점	단점
(대안1) 광역자치단체 에서 1차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2에 비하여 문화관광부의 선정업무가 용이해짐. 심사위원회의 평가대상이 축소됨 • 광역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자치단체를 거쳐야 함으로 평가과정에 있어서 신속성이 저하됨 • 관광도시 선정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의 복잡성 야기
(대안2) 문화관광부에 서 직접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신청도시에 대하여 직접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통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도시 대상지역이 과다하여 업무가 복잡해짐 • 중앙정부의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됨

○ 대안선택

- 선정 및 육성에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문화관광부가 직접 평가를 하게 될 경우, 후보대상도시가 많아 업무가 과다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1차 평가를 하는 것이 적함.
- ※ 광역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면, 광역시는 관광도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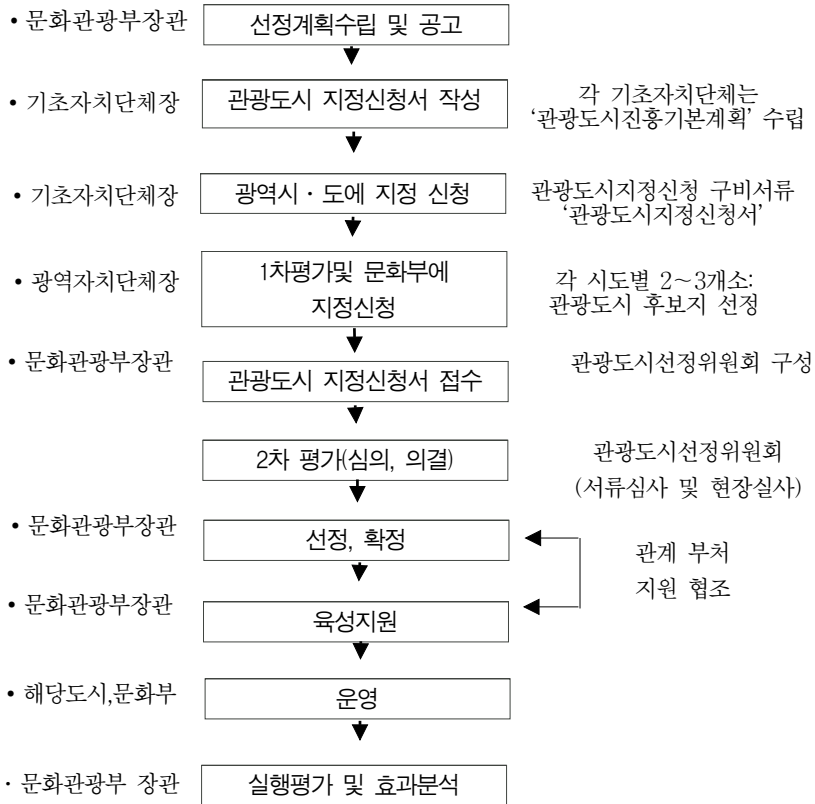
다. 선정조직

- 정부는 관광도시의 육성 촉진을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관광적 특성, 문화적 특성, 시설의 실태를 평가하고 관광도시 선정에 따른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지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따라서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조직으로서 가칭 ‘관광도시선정위원회’ 설치가 요구된다. 가칭 ‘관광도시선정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운영목적: 관광도시의 선정 추진 및 효율적 운영 도모,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관광도시 지정운영에 대한 사후평가
- 성격
 - 문화관광부 산하에 위원회 설치
 - 비상설기구로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관광도시 지정신청을 받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구성
 - 위원회 모임은 신청서 평가시, 현장실사시, 실행평가서에 대한 검토시 등 3회 실시
- 위원 구성
 - 관광 및 문화분야의 연구원 2인, 관련학계 2인, 관련업계 2인 등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선정을 위하여 사전에 관련 전문가 풀 구성(관련전문가 풀은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20여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 제출된 신청한 관광도시 후보도시의 ‘지정신청서’에 대한 평가(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및 평가서 제출
 - 지정된 관광도시의 실행평가서 및 효과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 문화관광부의 관광도시 선정 및 평가는 ‘관광도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관광도시 신청서에 대한 서면심사(선정평가)와 현장조사에 의한 두가지 방법을 모두 실시함으로써 선정·평가에 따른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라. 관광도시 선정과정

- 기초자치단체에 의하여 작성된 관광도시지정신청서는 1차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평가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관광도시 후보지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 관광도시의 선정 및 지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그림 4-3] 참조).



[그림 4-3] '한국의 관광도시' 선정 및 지정과정

2. 선정방법

가. 선정대상

○ '한국의 관광도시'의 선정 대상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대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

- 대안1: 기초자치단체중 시로서 72개
- 대안2: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232개
- 대안3: 기초자치단체중 시와 광역자치단체중 시(광역시) 78개

○ 대안별 평가

구분	장점	단점
(대안1) 시 7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를 중심으로 선정함으로 명확한 도시성격 부여 용이 • 국제적인 관광도시 육성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구를 제외함으로서 형평성에서 문제 발생
(대안2) 시·군·구 23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의 선정 및 지원 기회가 동일함 ※ 시범문화마을은 시·군·구 대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개수에 비하여 선정대상이 너무 많음 • 군은 도시화율이 낮아 ‘관광도시’ 지정 효과가 감소될 수 있음
(대안3) 시 7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의 경우는 많은 투자 없이 기대효과가 클 수 있음. •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명성을 고려 한다면 광역시의 포함이 유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를 선정대상으로 함에 따라 평가 척도 개발이 어려움 • 평가과정에 광역자치단체에서 1차평가 실시할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대안선택

- 관광도시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도시화율이 높은 시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한국의 관광도시’라는 국제적인 홍보와 도시 위상을 고려한다면 시(市) 이상이어야 함. 또한 ‘한국의 관광도시’ 선정제도가 도시의 관광을 촉진하고자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시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 그러나 ‘한국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됨에 따라 정부의 각종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됨으로 정책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한 지방관광의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도록 함.
-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를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또는 광역시만 별도로 관광도시로 지정·추진함으로서 지정제도를 이원화함.

나. 선정개수

○ 관광도시의 선정 개수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대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

- 대안1: 전국에서 1개소 선정
- 대안2: 대관광권별로 각 1개소씩 선정하여 전국 5개소 선정

○ 대안별 평가

구 분	장 점	단 점
(대안1)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도시를 선정함으로 집중적인 재정지원 가능 • 관광도시의 시범적으로 육성 추진이 용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대상에 비하여 선정개수가 너무 적음으로 선정 육성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
(대안2) 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효과적으로 관광도시를 홍보할 수 있음 • 정책의 효과를 고려할 때 초기에 다수의 도시를 선정함이 유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도시에 대한 지원금액이 낮아짐. 1개소의 지원금액의 1/5 수준에 불과하게 됨

○ 대안선택

- 1개 도시의 선정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고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도시(관광권역별로 1개소씩 5개소의 관광도시 선정)를 선정·육성하는 것이 용이함.
- 그러나 제도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행 초기 연도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1개소의 선정 지원이 바람직함. 관광도시의 지정제도가 정착하고 재정지원의 폭이 넓어지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함(2003년 관광도시부터는 5개소로 지정 범위를 확대 시행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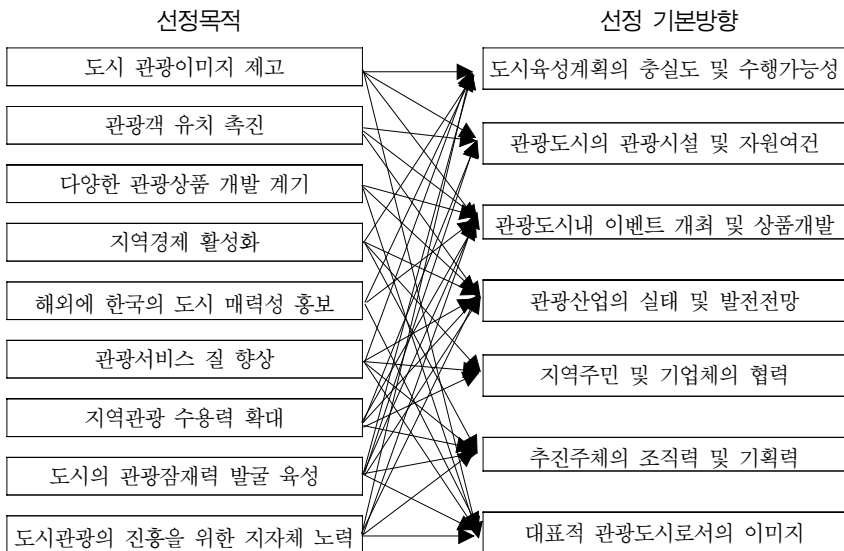
다. 관광도시 선정시기 및 선정주기

- 관광도시의 선정시기는 2~3년 전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관광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관광도시의 기반시설 확충, 관광도시의 홍보 및 상품개발 등의 사전 관광도시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도시로 선정된 해의 전 연도에 많은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도시는 최소한 2~3년전에 선정되고 선포되도록 한다.
- 관광도시 선정은 매년 실시하도록 한다(관광도시 선정심의회는 2000년의 경우는 2001년과 2002년의 관광도시를 선정하도록 하고, 2001년에는 2003년과 2004년의 관광도시를 선정하도록 하며, 2002년부터는 2005년의 관광도시를 선정하도록 함).

3. 선정기준 설정

가. 선정기본방향

- ‘한국의 관광도시’의 합리적 선정을 위해서는 관광도시 선정 목적에 따른 선정기본방향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국의 관광도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도시의 선정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중요하다.
- 관광도시의 선정방향에 있어서 관광도시 지정육성을 통하여 기존의 실태와는 다른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그림 4-4] 참조) 무엇보다도 관광도시의 진흥의지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관광도시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하여 관광도시 지정에 따라 지정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곳이 선정되어야 한다.



[그림 4-4] 관광도시 선정목적 및 선정방향

나. 선정단계별 심사방향

○ ‘한국의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과정은 1단계로 ‘관광도시지정신청서’를 심사하는 서류심사과정과 2단계로 현장실태조사와 관계자 면담조사를 하는 현장심사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서류심사과정은 각 도시에서 제출한 ‘관광도시지정신청서’에 의한 관광도시육성계획서를 심사하는 과정으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선정도시수의 2~3배수의 도시로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서류심사과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광역자치단체에서 1차평가하여 후보도시로 축소하는 과정과 문화관광부에 제공된 후보도시에 대한 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이 있음). 현장심사과정은 1단계 서류심사에 의하여 선택된 관광도시 후보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실태조사 및 관계관 면담조사과정으로서 <표 4-4>와 같은 방향에서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현장심사의 점수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고 그 합을 총 200점으로 하여 관광도시를 선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평가과정을 거쳐 획득한 총점은 각 후보도시들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평가점수 산정방법은 다. 단계별 선정기준 참조).

<표 4-4>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심사방향

구분	심사방향	심사기준
1단계 심사 (서류심사)	관광육성계획의 충실도 및 수행가능성	계획내용 정책·제도적 여건
	관광도시의 관광시설 및 자원여건	접근성 및 이용체계 시설·자원
	관광도시내 이벤트 개최 및 상품개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살거리
	관광산업의 실태 및 발전전망	관광산업·서비스
2단계 심사 (현장심사)	추진주체의 조직력 및 기획력	담당자의 업무성취능력 관계조직의 전문성 및 의지
	지역주민 및 기업체의 의식 및 협력	지역주민 친절도 기업체의 의식 및 협력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관광도시로서 의 이미지	도시의 쾌적성, 환경오염 관광도시 육성 잠재성

다. 단계별 선정기준

1) 1단계 서류심사

○ [그림 4-4]와 같은 관광도시의 조건에 기초하여 볼 때, 선정기준의 대항목은 계획내용, 접근성 및 이용체계, 시설·자원, 볼거리·즐길거리, 먹거리·살거리, 관광산업·서비스, 정책·제도적 여건 등으로 설정한다(<표 4-5> 참조).

- 7개의 대항목별로 평가하되 소항목을 2~3개씩 설정하도록 하여 총 15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함.

<표 4-5> 관광도시 선정 기준(1단계: 신청서심사)

대항목	소항목	내용
계획내용	관광도시 육성주제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제, 육성주제의 명확성 지역 CI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
	계획의 수준	계획 내용의 충실도, 계획의 합리성, 타당성
	지정효과	관광도시의 지정을 통한 관광진흥 효과
접근성 및 이용체계	접근체계(광역 및 도시내)	공항, 도로, 철도 등을 통한 접근성 및 도시내 교통시설 및 수단의 다양성
	관광안내정보 편의체계	안내정보 시설 및 서비스 제공
시설·자원	관광자원의 매력성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매력성 및 개발잠재력,
	관광시설, 자원	관광자원 및 시설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볼거리, 즐길거리	이벤트, 컨벤션 개최	이벤트 개최수 및 지명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이벤트 개최계획 등
	여행상품 개발	여행코스, 관광프로그램의 활용도 및 사전 계획
먹거리, 살거리	기념품 개발	공인특산품의 종류 및 지명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념품 개발계획
	향토음식의 개발	향토음식의 종류 및 지명도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음식의 개발
관광산업· 서비스	관광산업	관광산업의 비중, 관광사업체의 수, 관광산업의 성장
	서비스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제공 수준, 종사원 교육훈련 계획
정책·제도적 여건	진흥지원조달	관광부문 재원 조달 계획의 합리성
	추진력	관광담당조직의 추진력

○ 점수산정방법

-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7개의 대항목과 15개의 소항목에 대한 가중치(weight)는 다음 <표 4-6>와 같음.
- 소항목에 대한 평가는 세부항목별 가중치의 산정에 의한 전체 가중치와 평가 점수를 곱하여 총점을 산정함. 관광도시의 평가총점은 100점으로 함.
- 평가는 소항목 단위로 심사하되, 각 항목별 평가는 1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점수가 4점 미만일 경우는 관광도시 후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표 4-6>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총점(예시)

대항목		소항목		총 가중치	소항목 점수	합계
항목	가중치	항목	가중치 비율(%)			
계획내용	0.20	관광도시 육성주제	30	0.6	4~10	6
		계획의 수준	35	0.7	4~10	7
		지정 기대효과	35	0.7	4~10	7
접근성 및 이용체계	0.10	접근체계(광역 및 도시내)	50	0.5	4~10	5
		관광안내정보편의체계	50	0.5	4~10	5
시설·자원	0.10	관광자원의 매력성	50	0.5	4~10	5
		관광시설, 자원	50	0.5	4~10	5
불거리, 즐거거리	0.15	이벤트, 컨벤션 개최	60	0.975	4~10	9
		여행상품 개발	40	0.525	4~10	6
먹거리, 살거리	0.15	기념품 개발	50	0.75	4~10	7.5
		향토음식의 개발	50	0.7.5	4~10	7.5
관광산업· 서비스	0.12	관광산업	50	0.6	4~10	6
		서비스	50	0.6	4~10	6
정책·제도적 여건	0.18	진흥제원조달	50	0.9	4~10	9
		추진력	50	0.9	4~10	9
계	1.00	-	-	10.0	-	100

주: 총 가중치= 대항목가중치*소항목 가중치비율의 곱

소항목 가중치 비율= 소항목의 비중/대항목×100

2) 2단계 현장심사

○ 2단계 현장심사는 1단계 서류 심사를 거친 관광도시 후보도시에 대한 심사를 하는 단계로서 계량적인 기준보다는 정책적 여건과 추진의지 등을 심사하게 된다.

- 심사기준

- 해당 도시의 지역주민 친절도(15점)
- 기업체들의 관광도시로 육성 의지와 협력 여부(15점)
- 해당 도시 담당공무원의 관련 업무실적 및 업무성취능력(20점)
- 관련조직의 전문성 및 의지, 관광도시 육성계획의 기획력 등(20점)
- 도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곳, 해당 도시의 쾌적성 및 활력성(15점)
- 관광도시의 육성을 통한 개발 잠재력과 지정·육성을 통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15점)

- 심사방법: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심사위원에 의하여 평가하되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함. 이 경우에도 각 항목별로 만점의 40%를 넘지 못하는 경우는 관광도시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유사사례

1) 7대 문화관광권 문화관광거점지역 선정

○ 문화관광거점지역의 선정은 다음의 체계에 따라 선정되었다.

- 대상: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체
- 1차 선정: 광역자치단체 추천지역, 연구진발굴지역·전문가·자문위원·주한 외국인 의견조사의 결과를 반영
- 2차 선정: 문화관광거점지역 30개소 선정. 실무추진단 현장조사, 관광수용태세평가, 평가가중치 적용
- 우선순위결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결정

○ 평가 및 선정기준

- 각 시·도에서 요청한 후보지역과 전문가 등이 추천한 61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각각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문화관광거점 지역을 선정
- 각각의 평가요인별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는 전문가 조사의 결과를 적용하였으며, 또한 문화관광축제개최지, 관광관련 특별정책지역(남북연계개발지구, 월드컵개최지), 국제교류관계 보유지, 주한외국인 추천지역에는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표 4-7> 문화관광거점지역에 대한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가중치)	평가인자	고려요인
접근성(23.25)	공항과의 거리	국제공항과의 거리
	항구와의 거리	국제항구와의 거리
시장성(23.04)	외국인 방문규모	외국인 관광객수
관광자원(28.56)	지정관광(단)지	지정관광(단)지 수
	문화행사	지역축제 및 각종 이벤트 수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보유수
수용태세 (13.32)	숙박시설	관광호텔 객실수
	휴양콘도 객실수	휴양콘도미니엄 객실수
	관광안내소 보유수	관광안내소, 안내원 수
	기타(11.33)	화장실 보유수
관광관련 특별정책지역*		남북교류지역
	특별대책지역	월드컵 개최지
		국제투자자유도시
	문화관광축제개최지	문화관광축제 개최지
	국제교류관계 보유지	국제교류 역사 소재지
	유네스코 지정문화재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소재지
	주한외국인 추천지역	추천지역

주: *는 평가점수에 대한 가중치임

2) 관광특구 선정기준

○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접객시설, 쇼핑·상가시설, 휴양·오락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의시설, 관광안내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 통계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일 것
-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바다·산림·하천 또는 도로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될 것

○ 관광특구는 상시의 기준에 의거하여 관광특구를 평가하되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다.

- 동법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1항의 지정요건 적합 여부
2.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실적
3. 관광질서확립 및 서비스 개선 실적
4. 국내·외 관광홍보 실적
5. 기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시범문화마을 선정기준

○ 지방문화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시범문화마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항목이다.

- 역사, 문화, 예술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훌륭한 인물을 배출한 마을
- 전통문화를 잘 보존·전승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마을
- 지역주민의 문화욕구가 높으며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마을

○ 문화관광부에서는 '91년부터 '98년까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보 마을을 추천받아 건축, 조경, 민속, 고고학분야 등 각계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시범문화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4. 관광도시 지정신청서 작성

가. 기본방향

○ 관광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광도시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광도시지정신청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관광도시의 지정신청 사유
- ② 관광도시 육성 주제
- ③ 관광도시 준비 상황
- ④ 관광도시육성계획서
- ⑤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
- ⑥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 '관광도시육성계획서'는 관광도시의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지정신청도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광도시 육성계획서의 주요 항목

1. 계획내용(관광도시 육성주제, 계획의 수준, 지정효과 등)
2. 접근성 및 이용체계(접근체계(광역 및 도시내), 관광안내정보편의체계)
3. 시설·자원관광자원의 매력성, 관광시설, 자원
4. 볼거리, 즐길거리(이벤트, 컨벤션 개최, 여행상품 개발)
5. 먹거리, 살거리(기념품 개발, 향토음식의 개발)
6. 관광산업·서비스(관광산업, 서비스)
7. 정책·제도적 여건(진흥재원조달, 추진력)

- 작성기본요건

- 현실적인 계획으로서 계획추진이 달성가능해야 함
- 계획의 내용이 충실해야 함
- 계획의 내용은 시설개발 위주가 아닌 운영체계의 개선, 새로운 상품의 개발, 서비스의 제고 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된 계획내용이어야 함
- 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함,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에 주안점을 두도록 함
- 자금조달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추진이 가능해야 함

나. 주요항목별 육성계획서 작성지침

1) 계획내용

◆ 기본지침 ◆

- 관광도시육성계획서의 내용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함.
- 육성계획서는 21세기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관광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관광도시로서 계획기간내 실현가능한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및 추진전략이 제시되어야 함

○ 관광도시 육성주제

- 육성주제의 지역특성 반영 여부
-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주제설정의 합리성 및 주제의 명확성 등

○ 계획의 수준

- 육성계획서 내용의 충실도
- 계획내용의 합리성
- 신청 도시의 제반환경여건을 고려한 타당성 등

○ 지정효과

- 관광도시의 지정을 통한 관광진흥 효과
- 지역주민의 소득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홍보효과 등

2) 접근성 및 이용체계

◆ 기본지침

- 기존의 시설개발 위주의 개선계획이 아닌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계획 제시와 서비스 개선계획이 제시되도록 함.
- 시티투어, 관광마차 개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접근성 제고 계획이 제시되도록 함.

○ 접근체계(광역 및 도시내)

- 공항, 도로, 철도 등을 통한 접근성
- 주요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주요 관광지간 연계관광교통수단 개선 계획
- 도시내 교통시설 및 수단의 다양성: 시티투어, 산악관광열차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교통체계 구축 계획

○ 관광안내정보 편의체계

- 안내표지판, 안내지도 개발 실태 및 개선 계획
- 안내정보체계 현황 및 서비스 제공 계획, 관광안내소 편의서비스 개선 계획

3) 관광시설 및 관광자원

◆ 기본지침 ◆

- 지역의 특징적인 인문,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보전적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하드웨어 개발방식이 아닌 상품화 방안이 제시되도록 함.
- 관광시설 및 관광자원의 확충계획은 관광도시 지정을 통하여 더 많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도록 함.
- 기존의 관광개발이 계획추진주체만을 위한 일방형 계획이었다면, 관광개발을 통하여 관광객이 만족하고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함.

○ 관광자원의 매력성

-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매력성
- 지역의 자원 보유 현황 및 자원화 계획(경관, 자연·생태, 역사문화자원 등)
- 관광자원의 개발 잠재력

○ 관광시설, 관광자원

-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 현황(관광숙박시설, 관광위락시설, 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계획
- 관광숙박시설의 개선·확충 및 서비스 개선(저가형 숙박시설 확보, 예약시스템 구축, 바가지 상혼 단속 등)

4) 볼거리, 즐길거리

◆ 기본지침 ◆

- 대형 이벤트를 중심으로 계획위주에서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기반형 이벤트 개발에 주안점을 두도록 함.
- 새로운 소재발굴 및 상품화에 주안점을 두되,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함.
- 전국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고유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창출해내도록 함.

○ 이벤트, 컨벤션 개최

- 이벤트 및 컨벤션 개최 현황 및 지명도
- 지역특성을 반영한 이벤트 및 컨벤션 개최계획
- 이벤트 및 컨벤션 개발 육성을 통한 지역소득 연계계획

○ 여행상품 개발

-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여행사의 관광상품 취급현황) 및 계획
- 개발된 테마코스별 안내도 제작 및 관광객 유치현황 및 계획
-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현황 및 활용계획

5) 살거리, 먹거리

◆ 기본지침 ◆

- 관광도시 육성지원을 통한 효과가 단기간에 발휘될 수 있는 소규모 상품개발에 주안점을 두되, 지역특성이 반영되어 방문객의 선호가 높은 상품이 되도록 함.
- 살거리, 먹거리의 경우에서도 새로운 소재발굴 및 상품화에 주안점을 두되,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함.
- 전국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고유한 살거리, 먹거리를 창출해내도록 함.

○ 기념품 개발

- 공인 기념품(특산품 포함)의 종류 및 지명도
-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광기념품 개발계획
- 기념품 판매센터 정비 및 쇼핑관광 활성화 계획
- 판매종사원 서비스 질 제고 계획

○ 향토음식의 개발

- 향토음식의 종류 및 지명도
- 지역특성을 반영한 음식의 개발계획
- 먹거리의 소재발굴 및 상품화 계획: 메뉴 개발, 상설 먹거리 장터 운영 등
- 토속음식점의 확충 및 정비 계획
- 음식 서비스 질 제고계획: 종업원서비스 제고 및 시설의 청결 유지, 우수 관광식당 지정제도 운영 등

6) 관광산업 및 관광서비스

◆ 기본지침 ◆

- 관광산업의 총체적인 규모의 제시보다는 관광산업이 그 지역에서의 중요도 및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성장에 주안점을 두도록 함.
- 관광서비스의 제고는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서 종업원의 교육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방안, 지역주민의 서비스 교육을 통한 관광서비스 인식 제고 등에 주안점을 두도록 함.

- 관광산업 현황 및 발전계획
 - 관광산업의 수 및 규모
 - 관광산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지역산업의 중요도
 - 관광산업의 성장추세 및 발전계획
- 관광서비스 제공 현황 및 계획
 -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제공 수준, 관광종사원의 수
 - 종사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및 계획
 - 종사원 교육훈련 기관의 실태 및 계획
 - 관광도시 육성 추진을 위한 서비스 제고계획

7) 정책 제도적 여건

- ◆ 기본지침
 - 지방자치단체가 관광도시를 진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제시되어야 함.
 - 이러한 추진전략계획은 현실적으로 추진가능한 계획이어야 하며, 지정육성기간 안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함.
 - 육성계획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어야 함.

- 진흥재원조달: 관광부문 재원 조달 계획의 합리성
 - 민간부문의 재원조달 계획
 - 지역주민의 소자본 활용계획
- 추진력: 관광담당조직의 추진력
 - 점담부서의 설치·운영 계획
 - 관민 협력 체계
 -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조직구성
 - 지역주민 참여 방안(소규모 관광사업 발굴 및 참여 기회 확대)

5. 관광도시 선정 및 지원에 따른 사후평가

가. 목적

- 관광도시 선정에 따른 정부 및 기타 관련기관의 재원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후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후평가는 향후 관광도시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판단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 또한 관광도시 지정으로 인한 정책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다 나은 관광도시 지정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 방법

- 평가주체는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되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평가실시는 기 구성된 가칭 ‘관광도시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 평가시기는 당해 연도의 관광도시 운영 결과에 대한 것이므로 관광도시의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음해의 관광도시에 대한 지원이 곧 이어짐으로 관광도시로 지정된 그이듬해 3월~5월에 실시하도록 한다.
- 이러한 사후평가는 실행평가 및 효과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실행평가란 초기에 관광도시육성기본계획서에 계획한 사항에 대하여 얼마만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으며, 효과분석이란 관광도시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다. 내용

- 평가내용은 관광도시의 지정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본다.
 - 관광도시 지정신청서의 이행 수준(실행평가): 지정신청서에 대한 비교·분석
 - 지정육성의 파급효과(설문평가): 관광객, 지역주민, 전문가 등 설문조사평가

라. 사후활용

○ 관광도시 지정 육성에 대한 평가결과는 향후 관광도시의 지정 및 육성으로 인한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게 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조정, 차기년도의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정·육성한 관광도시의 향후 지원계획에 활용하도록 한다.

제3절 관광도시 육성 및 지원방안

1. 육성방안

가. 기본방향

○ 관광도시로 지정된 도시에서 그 해 ‘관광도시 사업’은 도시관광의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이어야 한다. 단순히 관광시설 등 하드웨어 부문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은 ‘한국의 관광도시’ 사업으로는 우선순위가 낮으며 기존 시설의 서비스 운영시스템의 개선, 소규모의 특성있는 상품개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 부문의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한다.

○ 따라서 관광도시의 육성을 위하여 각 도시별로 특성있고 차별화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 계획에 의하여 단계별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테마를 설정하여 육성하도록 한다. 즉, 해당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테마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의 적극적 협력하에 행정, 재원, 상품개발, 홍보 등 각 분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해당 관광도시를 효율적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 관광도시 육성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한국의 관광도시’가 선정된 이후에 수립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광도시의 육성방안의 주요 항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나. 육성방안

1) 지역특성화 사업

- 도시의 역사문화, 자연특성, 지역산업에 기초하여 관광도시의 육성주제 설정
- 관광도시의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 수립
- 도시의 CI계획 및 캐릭터 개발 방안

2) 접근성 및 이용체계

① 관광교통체계 개선

- 주요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주요 관광지간 연계관광교통수단 개선
- 주요 도로의 확장·정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 시티투어, 산악관광열차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교통체계 구축

② 관광안내 정보체계 구축

- 지역 관광정보화 시스템 구축
 - 관광자원의 여건, 관광시설, 숙박시설 안내와 예약 연계
 - 네트워크화 추진: 메인정보센터(시청 또는 군청, 구청), 보조센터(진입로), 안내소(주요관광지, 백화점, 공항, 터미널, 역 등) 간 망 구축
 - 주요 관광지 및 시내 요지에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 안내표지판 정비 및 관광안내지도 제작 배포
 - 도로변에 관광안내 정보센터의 안내표지판 설치

3) 관광시설 및 관광자원

① 지역의 부존자원의 발굴 및 관광자원화

- 지역내 관광잠재력이 높은 문화재, 유적, 민속, 독특한 생활양식 등을 발굴하

여 관광상품화

- 주요 경관지역, 생태, 동식물 등 자연자원의 보존 및 관광자원화
-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연계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 음식, 문화, 생활양식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② 역사, 문화, 자연자원의 보전 및 활용

- 역사적 유적지의 정비 및 관광코스화
 - 왕궁터, 성곽, 생가, 전적지, 전통정원 등 역사적 유적지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발굴, 주요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관광상품화
-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상품화
 - 전통놀이, 민속, 전통 생활양식, 복식 등 문화자원의 발굴 및 문화상품화
 - 전통적 소재를 활용한 현대적 감각의 문화상품 개발
-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상품 개발: 생태자원, 갯벌자원, 동식물 등

4) 볼거리, 즐길거리

① 테마성 이벤트 개발

- 테마성 이벤트 개발 육성을 통한 지역소득 연계
- 시기별, 지역별 중점 이벤트 선정
-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규모 이벤트의 개최

② 문화관광공간 확보 및 각종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 전통예술 상설공연장 및 민속놀이 마당의 설치 및 정기적 공연,
- 국악학교, 민속악기 교습, 도자기 빚기 등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운영
- 외래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코스 개설

③ 관광코스 설정 및 관광상품화

-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의 설정 및 테마화

- 개발된 테마코스별 안내도 제작 및 관광객 유치
- 상품성있는 관광코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여행사의 관광코스화 적극 유도

5) 살거리, 먹거리

① 특색있는 기념품 개발 및 쇼핑관광활성화

- 지역의 토산품, 특산품 등 고유한 관광기념품을 개발
 - 지역성(식물, 돌, 나무 등) 및 문화성을 부각시키는 소재 채택
 - 지역의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상징성을 부여하여 고유한 관광기념품 개발
 -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
- 토산품 및 기념품 판매센터 정비
 - 지역의 특산품, 토산품 판매소 정비 및 지역 랜드마크화
 - 외국어 안내 및 정찰제 등 실시

② 향토음식의 개발을 통한 먹거리의 상품화

-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개발
- 상설 먹거리 장터의 운영: 다양한 민속음식과 주류, 한과, 떡, 토산품 등을 직접 먹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상설 먹거리 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함.
-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통한 소재 발굴 및 상품화
- 우수 관광식당 지정제도 운영
- 퓨전푸드의 개발: 외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전통의 소재를 서양식 조리법, 원료 등과 혼합시켜 퓨전푸드 개발

6) 관광산업 및 관광서비스

① 관광산업 시설의 개선·확충 및 서비스 개선

- 민박, 관광농원 등을 활용한 저가형 숙박시설 확보
- 숙박시설의 예약 시스템 구축
- 관광서비스 제고 및 바가지 상흔 단속

- 외래객을 위해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안내물 비치

② 공무원, 종업원 및 지역민 서비스교육

- 관광도시의 효율적 육성을 인력교육 지원: 지역담당 공무원 관광전문교육, 지역주민의 서비스 교육 훈련 교육, 지역상인의 서비스 교육 등
- 관광도시 운영에 관련된 전문가와 지역민의 토론회 개최 지원

7) 홍보마케팅

① 홍보전략수립

-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전담조직의 구성: 장기적인 기획과 철저한 실행, 그리고 장기적인 집행력과 관광홍보 및 광고에 대한 재원 확충
- 관광도시의 주제 및 슬로건을 설정하여 국내외에 집중 홍보
- 외국의 주요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통한 홍보
- 지역 이미지에 적합한 CI개발: 마스코트·마크·로고·색상 등
 - 관공서의 행정 적용 및 관광안내, 홍보 시설물 등에 적용

②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실시

- 관광홍보매체의 다각화
 - 기존 광고매체(신문, 잡지, TV)를 탈피하여 프로모션형 광고,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등 광고매체의 다변화 시도
 -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광고계재 상호협약
- 각종 홍보물에 '관광도시' 관련 내용을 수록하도록 함.
- 인터넷을 통한 홍보강화 및 특화상품 홍보강화

③ 다양한 방문객 유치촉진수단의 개발

- 여행사, 호텔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 ‘관광도시카드(가칭)’ 발급하여 관광객의 편리성 강화
- 다국어 관광지도 제작 및 홍보책자 발간
- 홍보포스터 제작 및 CD 및 비디오 제작 등

④ 해외홍보

- 관광공사를 통한 해외홍보
- 해외 자매도시와의 상호 지역매체별 광고개재 협정체제 구축
- 주목효과가 큰 매체에 개재(TV, 라이트BOX, 포스터 등)

8) 정책제도지원

① 추진조직의 구성 및 추진재원 확보

- 관광도시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조직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내에는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 지역사업자들을 중심으로한 ‘관광도시육성추진협의체’ 구성
-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 재원조달

② 관민 협력 방안

- 민간 지원협력 토대의 구축
 -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관광도시 가꾸기운동’조직 구성
 - 지역 향토전문가 등의 지역관광안내원의 활용
-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토론의 장 마련
- 지정운영 후 결과를 발표하는 워크숍 개최: 지역민과 실무자, 전문가들이 모여 발전방안을 논의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단 운영지원: 관광, 문화, 도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수시자문단 운영

③ 지역주민의 참여사업 발굴 지원

- 지역주민의 소자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관광사업 발굴
 - 민박사업, 향토음식점, 토산품점 등
- 각종 행사개최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회 증대

2. 지원방안

- 관광도시 지정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광도시로 지정받고 싶어하는 매력있는 인센티브 방안의 개발이 중요하다.
- ‘한국의 관광도시’지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관광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 이에 따라 ‘한국의 관광도시’지정 목적을 고려할 때, 관광도시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지원, 홍보지원, 재정지원 및 운영노하우 지원 등이 필요하다.

가. 행정지원

- 관광도시에 대한 행정지원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반 정책추진시 선정된 관광도시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거나 관광도시내 각종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신규 상품의 개발을 위한 각종 인허가의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선정 고시된 기간부터 지정기간까지 2~3년 동안).
- 관광특구 지정시 부가점수 부여, 관광거점도시 지원 및 특화사업지원시 부가점수 부여, 10대 문화관광축제 선정시 부가점수 부여, 문화의 거리 지정시 우선 고려대상 등
- 이외에 관련 부처의 협력 유도를 통한 지원 등이 요구된다,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부처 지원 유도(관계 부처 협의)
 - 행정자치부의 국고보조사업에의 지원 유도 등

나. 세제지원

- 관광도시로 선정된 지역의 관광시설 및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손비처리에 따른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실화 시키기 어렵다.
- 또한 지방세 감면 및 면제에 관련하여 현재 지방세법은 시조례에 의거하여 과세면제 및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관광시설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있으나 이는 세수감소로 이어짐으로 용이하지 않다.
- 결국, 관광도시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그리고 그 지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기에는 제한요건이 많은 실정이다.

나. 홍보지원

- 각종 국내외 홍보물에 ‘관광도시’ 관련 내용을 수록하도록 한다.
 - 기존 브로셔에 관광도시에 대한 홍보 문구를 삽입
 - 관광지도 제작(국문, 영어, 일어, 중국어 판) 및 관광홍보 책자, 포스터 등의 홍보물 발간시 비용지원(해외물량에 대하여) 및 해외홍보를 적극 추진
 - CD 및 비디오 제작시 지원: 제작방법 및 제작재료 지원
- 인터넷을 통한 홍보강화: 관광공사 및 관련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관광관련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에서 해당 관광도시를 집중 홍보하도록 한다.
- 지역의 특화상품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 여행사, 호텔 등을 대상으로 ‘관광도시의 진흥방안’ 설명회 개최를 지원한다.
- 해당 관광도시로의 외래객 유치 업체 및 내국인 방문객 유치 실적이 높은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해외미션단 파견시 해당 관광도시 관계자 동행 홍보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광도시카드(가칭)’ 발급하고자 할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문화관광부의 명의 공동 사용권 부여하도록 한다.

다. 재정지원

1) 지원대상

- 관광도시의 진흥을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은 하드웨어적인 시설 개발투자 지원이외에 운영 및 상품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 이벤트개최
- 상품개발(여행상품, 특산물개발 등)
- 홍보예산: 브로셔작성, 안내물 등
- 관광목적의 시설개발(관광기반시설 등)에 지원

2) 지원재원

-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선정된 해 이전까지 관광도시의 준비기간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하고, 선정된 해에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 재원지원은 매칭펀드(matching fund)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함
 - 국고보조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50%
 -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30%
 - 민간기업 및 지역주민 20%
- ※ 공공부문의 지원확대를 통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 유도방안 모색(민간부문의 투자의욕 고취)
- 이외에 관련 부처의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지원을 받도록 유도함
- 행정자치부의 지원사업(예: 꽃길조성 등)으로 선정 유도
- 도로망 확충, 기간시설 투자시 우선지원 유도

라. 운영노하우 지원

- 관광도시운영계획의 수립을 지원
- 관광도시의 효율적 육성을 인력교육 지원: 지역담당 공무원 관광전문교육, 지역주민의 서비스 교육 훈련 교육, 지역상인의 서비스 교육 등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단 운영지원: 관광, 문화, 도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수시자문단 운영
- 관광도시 운영에 관련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토론회 개최 지원
- 관광도시의 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수시 운영 모니터링
- 지정운영 후 결과를 발표하는 워크숍 개최: 지역민과 실무자, 전문가들이 모여 발전방안을 논의

제4절 아시아 관광도시(Asian City of Tourism) 추진방안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배경

- 유럽의 문화도시 지정 사례를 통해 볼 때, ‘아시아 관광도시’ 지정제도는 아시아 역내 국가들간의 통합된 관광정책을 추진함으로 각국의 도시 홍보는 물론 도시의 관광진흥을 촉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00년 APEC 관광장관회의 Agenda로 채택하기 위한 정책 개발

나. 필요성

- ‘아시아 관광도시’의 선정은 아시아지역내 각 도시의 관광을 효과적으로 진흥시키고 아시아인들의 통합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
- 매년 아시아내 한 도시를 선정하여 APEC기금과 각국 정부, 지정도시의 지원을 통하여 국제관광을 촉진시키는 범아시아권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다. 선정기대효과

- ‘아시아 관광도시’의 지정은 각 도시의 관광적 가치의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증가를 유도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아시아 관광도시’ 제도의 기대효과
 - 아시아역내 국가들간의 관광교류 증대
 - 관광객의 증대 효과
 - 해당 도시의 관광산업 진흥
 - 고용창출
 - 경제 파급효과

2. 추진방안

가. 선정기준

- 도시의 관광산업 규모
- 도시의 문화관광 잠재력
- 도시의 재정 잠재력
- ※ 특별한 해에는 복수 도시 지정 가능

나. 선정절차

- 2000년 APEC 관광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논의
- 2000년 후반 주요추진사업으로 채택하고 각 국가에 홍보
- 2001년에 후보 도시의 신청을 받아 평가
- 2002년 아시아관광도시 지정

다. 선정조직

- 담당조직: APEC내 비상설적인 관광도시선정조직의 구성

○ 주요 기능

- 아시아 관광도시의 신청서를 심의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프로그램에 맞도록 예산 및 정책을 집행

○ 주체별 역할

- APEC: 아시아 관광도시의 육성을 위해서는 APEC는 아시아관광도시의 홍보와 각국간의 정책교환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 해당국가 및 선정도시: 선정된 도시의 해당국가는 도시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민간투자를 유도하도록 함.
- 지정도시: 관광도시의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재원마련을 통한 투자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각종 인센티브개발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도록 함.

제5장 관광도시 육성 추진방안

제1절 법·제도 정비

1. 관련 법규 현황

- 도시의 특성을 살려 개발하고자 하는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제도가 도시계획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1999년 11월 개정 법률).
- 법 제5조 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의 요청에 의하여 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법 제5조 2항: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법 제5조 3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5조 4항: 시범도시의 지정과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내 특정지구에 대하여 ‘문화지구의 지정·관리(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2)’ 제도가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다(1999. 12월 개정법률)

- 법 제10조의2 1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계획법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하 “문화시설등”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2.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기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법 제10조의2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권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법 제10조의2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당해 문화지구안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의 종류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관광도시 지정 제도 도입

○ 관광도시의 법적 규정 대안

- 대안1: 관광진흥법상 “관광도시 지정·육성”에 대한 조항 삽입
(해당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 지정)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도시 육성계획” 수립 규정 삽입 필요: 내외관광객 유치계획, 도시내 자원시설 등에 대한 정비·보완계획, 도시관광마케팅계획, 관광 이벤트 개최 계획, 투자 및 운영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함.
- 대안2: 도시계획법상의 근거조항인 ‘시범도시의 지정·지원(법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지정하되 관광진흥법상에서는 육성·지원에 대한 조항만 규정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 대안별 평가

구 분	장 점	단 점
(대안1) 관광진흥법상 지정·육성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부 독자적으로 관광 도시를 지정 육성할 수 있음 • 관광도시 지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정 및 육성제도임으로 시설개발 등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게 됨
(대안2)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하여 관광진흥법에는 육성지원조항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김 • 관광도시의 지정 육성이 도시의 특성있는 육성과 연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장의 협의를 거쳐야 함으로 관광도시 지정과정이 복잡해짐

○ 대안선택

- ‘한국의 관광도시’ 지정제도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상에 지정 및 육성관련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나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추진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지정제도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됨.

제2절 추진방안

○ ‘한국의 관광도시’ 선정 및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관광도시를 지정하고 육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에 선정될 ‘한국의 관광도시’에 대한 선정·육성 추진방안에 대하여 2000년에 추진하여야 할 업무와 사후평가 업무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2001년 한국의 관광도시’의 선정 및 육성을 위한 추진과정은 <표 5-1>과 같이 6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진과제별 추진시기는 <표 5-2>와 같다.

- 1단계는 ‘한국의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관광도시선정관련 법규정의 개선 및 관광도시 선정기준의 확정, 관광도시 선정관련 설명회 개최 등이 실시된다.
- 2단계는 ‘한국의 관광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작업단계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의 관광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관광도시선정지원요청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이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도시선정지원요청서와 같이 요구되는 ‘관광도시육성계획서’를 지역주민의 합의하에 작성하여야 한다.

- 3단계는 ‘한국의 관광도시’ 선정단계로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관광도시선정지원요청서를 1차 평가하고 문화관광부에 제출된 관광도시 후보도시에 대한 2차 평가를 하게 된다. 이때, 문화관광부는 관광도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선정된 ‘한국의 관광도시’를 확정 및 공고하여야 한다.
- 4단계는 선정된 ‘한국의 관광도시’에 대한 지원·육성단계로서 선정된 관광도시는 관광도시육성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의거하여 각종 지원 및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선정된 관광도시에 대한 지원은 선정된 해 이전과 선정된 해의 지원·육성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하게 된다.
- 5단계는 관광도시 운영 단계이며,
- 6단계는 육성지원에 따른 실행평가 및 효과분석단계이다.

<표 5-1> 2001년 한국의 관광도시 선정 추진과정

단계	추진내용	추진방법(주체)
1단계	관광도시 선정관련 법제도 마련(규정개선)	관계법령개선(문화관광부)
	- 관광도시 선정기준 제시	
2단계	관광도시 선정관련 설명회 개최/공문발송	설명회 개최(문화관광부)
	관광도시 선정지원 요청서 작성 - 관광도시 진흥기본계획서	기본계획서 작성 (지원 도시)
3단계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1차 평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2차 평가	문화관광부
	- 관광도시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한국의 관광도시 선정 확정	문화관광부
4단계	관광도시 육성기본 기본계획 수립	문화관광부/연구원/
	- 해당 도시가 제시한 기본계획을 토대	해당도시
	육성기본계획에 의한 지원	문화관광부
	재정지원: 기금신청 및 확정	해당 도시, 문화관광부
	-각종 홍보지원	공사/해당 도시
	- 기반시설 정비·확충	해당 도시
5단계	- 상품개발, 이벤트 개최 등	해당 도시
	관광도시 운영	해당도시/문화관광부
6단계	육성지원에 따른 실행평가 및 효과분석	문화관광부/연구원

<표 5-2> 2001년 한국의 관광도시 선정·육성을 위한 사업추진과제별 추진시기

구분	사업추진과제	추진주체	추진시기				
			2000(분기별)				2001
			1/4	2/4	3/4	4/4	
관광도시 지정 제도	‘한국의 관광도시’제도 확정	문화관광부					
	관광도시 선정지침서 작성	“					
	관광도시 선정·사업 설명회	“					
	관광도시 육성계획서 작성	기초자치단체					
	관광도시 지정신청서 제출	기초자치단체					
관광도시 선정	관광도시 지정신청서 접수 및 1차 평가, 문화부 제출	광역자치단체					
	지정신청서 접수 및 2차 평가	문화관광부					
	관광도시 평가 및 선정	문화관광부					
	‘한국의 관광도시’ 선포	문화관광부					
관광도시 재정지원	기금지원 신청 검토 및 지원확정	문화관광부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	문화관광부					
	기금 및 국고지원	문화관광부					
관광도시 홍보지원	한국의 관광도시 선포식	문화부, 해당도시					
	홍보물을 통한 국내외 홍보	문화부, 공사, 해당도시					
	인터넷을 통한 홍보						
	여행사 등 사업체 설명회 개최						
	해외홍보 미션단 파견	문화부, 해당도시					
관광도시 홍보지원	관광도시 행정편의 개선	해당도시					
	관련 정책의 우선지원 대상 선정	문화관광부					
	관련 부처 협력 유도	문화부, 해당도시					
운영노하우 지원	관광도시 육성계획수립지원	문화부, 연구원					
	인력교육지원	문화부, 연구원					
	자문단 운영지원	문화부, 연구원					
	수시운영 모니터링	문화부, 연구원					
	지정운영후 사후 평가 및 워크샵 개최(2002)	문화부, 해당도시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관광도시 특성이 강한 도시를 ‘한국의 관광도시’로 지정하여 도시의 관광을 진흥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광도시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한국의 관광도시’ 지정 제도는 해당 도시는 물론 해당 지역의 지역주민, 기업체 그리고 관광객 등에게 재정지원효과, 관광도시의 매력성 및 이미지제고 효과, 관광의 전반적 촉진효과, 지역경제 제고효과, 관광환경개선 효과 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관광도시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도시의 경영에 있어서 마케팅의 기법을 적용하여 도시의 고유 특성을 살려 상품화하고 또한 주로 많이 내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용객을 끌어들이고 지역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국의 관광도시’지정제도와 유사한 사례로서는 문화관광부에서 ‘94년부터 지정 운영하여온 관광특구, ‘90년부터 ‘98년까지 지원하여온 시범문화마을, 해양수산부가 ‘99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어촌체험관광마을, 농수산부의 농어촌관광마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지구나 지역에 대한 시설개발 차원에서의 제도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되고 있는 관광도시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도시 선정방법과 관광도시의 육성을 위한 육성방안,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관광도시 선정은 해당 시·군에서 신청한 신청서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선별하고 문화관광부에 제출된 후보 관광도시에는 2차적으로 가칭 ‘관광도시선정위원회’를 조직하여 평가 및 선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복합적으로 실시함으로 관광도시 선정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주도록 한다. 초기 연도에는 1개 도시의 선정·지원을 추진하되, ‘한국의 관광도시’ 지정제도가 정착하고 재정지원의 폭이 넓어지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관광도시의 선정시기는 최소 2년 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관광도시의 선정기준은 도시의 잠재특성을 살려 특성있는 관광도시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도시가 선정되도록 서류심사기준과 현장심사기준으로 나누어 설정하되, 문화관광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평가위원들로 구성된 ‘관광도시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선정된 관광도시에 대한 육성은 구체적인 육성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지역특성화 사업, 문화관광 환경 조성, 관광시설 및 환경개선, 홍보 및 마케팅, 지역주민 참여 확대, 추진재원의 확보, 관민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관광도시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지원은 주로 홍보지원 및 재정지원으로서 최소한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홍보지원은 예를 들어, 각종 홍보물에 ‘관광도시’ 관련 내용을 수록하여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과 인터넷을 통한 홍보강화, 여행사, 호텔 등을 대상으로 ‘관광도시의 진흥방안’ 설명회 개최시 지원 등이 있다. 재정지원은 관광도시의 육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재원지원은 하드웨어적인 시설 개발투자 지원 보다 운영 및 상품화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하도록 한다. 진흥재원은 매칭펀드(matching fund system)형식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운영노하우 지원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관광도시 운영계획의 수립을 지원한다던가 관광도시의 효율적 육성을 지역담당 공무원 관광전문교육, 지역주민 및 지역상인의 서비스 교육 훈련 등이 매우 필요하다. 이외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단 운영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향후 관광도시의 선정추진은 정책입안과 설명회를 거쳐 2000년 3~4월에 관광도시 선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한다. 2000년 5월부터는 선정된 도시에 대한 관광도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수립되도록 한다.

‘한국의 관광도시’ 지정제도가 성공적 추진되고 지정제도를 통하여 각 지방의 도시들이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과 관련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1998),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 김진애(1993),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위한 21세기 도시경영과제’, 『21C 논단』, 대통령자문21C위원회, 통권 10호.
- 법제처, 관광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 · 도시계획법
- 유환중 외(1999), 『현대도시의 변화와 정책』.
- 이광희 · 김영준(1999), 『체험관광상품 개발 활성화방안』.
- 한국관광연구원(1997), 『관광특구 활성화방안』.
- 한국관광연구원(1998), 『7대 문화관광권 진흥방안』.
- 한국관광연구원, 문화관광부 편(1999), 『99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한국도시연구소(1998), 『생태도시론』, 박영사.
-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6), 『도시 문화환경 조성방안』.
- 황용주(1997), 『도시계획, 삶과 문화의 뜰짜기』.
- Bill Bramwell, “User Satisfaction and Product Development in Urban Tourism”, *Tourism Management*, Vol. 19, No. 1. pp. 35-47, 1998.
- Christopher M. Law(1991), “Tourism and Urban Revitalization”, *East Midland Geographer*, Vol. 14, pp. 49-60.
- Christopher M. Law(1993), 『Urban Tourism: Attracting Visitors to Large Cities』.
- George Hughes(1999), “Urban Revitalization: the Use of festive Time strategies”, *E & FN Spon..*
- JNTO(1997), Travel Manual 1996-1997
- Leo Van Den Berg, Jan Van der Borg and Jan Van der Meer(1995), 『Urban Tourism』.

부 록

1. 기초자치단체 현황
2. 일본의 국제관광모델지구 현황
3. 전문가의견조사서

구 분		명 칭	계
시 · 도 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1
	대구광역시	달성군	1
	인천광역시	옹진군 · 강화군	2
	울산광역시	울주군	1
	경기도	화성군 · 포천군 · 광주군 · 여주군 · 양평군 · 가평군 · 양주군 · 연천군	8
	강원도	화천군 · 양양군 · 고성군 · 횡성군 · 영월군 · 평창군 · 정선군 · 홍천군 · 인제군 · 양구군 · 철원군	11
	충청북도	청원군 · 진천군 · 괴산군 · 음성군 · 영동군 · 옥천군 · 보은군 · 단양군	8
	충청남도	금산군 · 부여군 · 서천군 · 연기군 · 예산군 · 당진군 · 청양군 · 홍성군 · 태안군	9
	전라북도	완주군 · 임실군 · 진안군 · 무주군 · 부안군 · 고창군 · 순창군 · 장수군	8
	전라남도	영광군 · 장성군 · 담양군 · 화순군 · 함평군 · 영암군 · 강진군 · 장흥군 · 신안군 · 무안군 · 해남군 · 완도군 · 진도군 · 구례군 · 곡성군 · 보성군 · 고흥군	17
	경상북도	청도군 · 군위군 · 고령군 · 칠곡군 · 성주군 · 봉화군 · 예천군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 울진군 · 의성군 · 울릉군	13
	경상남도	창녕군 · 의령군 · 함안군 · 고성군 · 산청군 · 하동군 · 남해군 · 거창군 · 함양군 · 합천군	10
	제주도	북제주군 · 남제주군	2

2. 일본의 국제관광모델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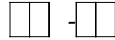
- 일본의 국제관광모델지구제도는 1985년 12월에 운수성이 정한 ‘국제관광모델 정비사항’에 기초한 제도로 해외에 소개할만한 관광자원을 갖고있는 관광지로서 외국인 여행자 수용태세의 정비에 노력하는 지역을 국제관광모델지구로서 지정하고, 외국인여행자가 안심하고 혼자서 여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추진하여 해당지역에의 외국인여행자의 내방을 촉진시키고, 지방의 국제화, 국제상호이해의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국제관광모델지구의 지정요건은 ① 외국에 소개할 만한 관광자원 보유, ② 공공교통기관의 정비, ③ 의료체제의 정비, ④ 숙박시설의 정비, ⑤ 관광안내시설의 정비 및 계획이 일정수준이 되어야 한다.
- '86년에 15개지구가 제1차로 지정되었고, '87년에 21지구가 제2차로 지정되었으며, '93년에는 6지구가 제3차로 지정을 받아 현재 39道縣 42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 국제관광모델지구에 있어서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I”안내소, 종합안내관, 각종표지 등의 정비, 팸플렛의 완비, Good Will 가이드 및 home-visit제도의 보급, 문화카드의 배포 등 외국인관광객 수용태세의 정비를 추진하고 국제관광진흥회의 해외관광선전사무소를 통한 광고선전을 지원하고 있다.
- 국제관광모델지구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각 도, 현 및 국제관광진흥회로 구성되는 국제관광모델지구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관광홍보 및 외국인관광객 수용태세정비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한다.
- 일본의 국제관광모델지구는 관광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국제적인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취지가 우리나라 관광특구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나, 지정된 지역이 외국에 소개할 가치가 있는 관광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중앙정부가 시설투자나 세제감면 등의 지원없이 안내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JNTO, 1997), Travel Manual 1996-1997

<부록 표 2> 일본의 국제관광모델지구 현황

都道府縣	국제관광모델지구	
Hokkaido	(1) Sapporo-Lake Shikotsu Area	(2) Hakodate-Onuma Area
Aomori	(3) Aomori-Lake Towada-Hirosaki Area	
Iwate	(4) Morioka-Hachimantai Area	
Akita	(5) Towada-Hachimantai-Tazawa Area	
Miyagi	(6) Sendai-Matsushima Area	
Yamagata	(7) Zao-Yamadera-Dewasanzan Area	
	(8) Yonezawa-Okitama-Areadia Area	
Fukushima	(9) Aizu-Wakamatsu-Bandai Area	
Niggata	(10) Nigata-Sado-Yahiko Area	
Nagano	(11) Matsumoto-Japan Alps Area	
Ibaraki	(12) Tshiura-Tsukuba Area	
Tochigi	(13) Nikko-Utsunomiya Area	
Chiba	(14) Narita Area	
Kanagawa	(15) Kanagawa Area	
Yamanashi	(16) Mt. Fuji-Five Lakes Area	
Toyama	(17) Toyama-Tateyama-Kurobe Area	
Ishikawa	(18) Kanazawa-Minami-Kaga-Oku-Noto Area	
Fukui	(19) Echizen Area	
Gifu	(20) Hida-Takayama Area	
Shizuoka	(21) Izu Higashi-Kaigan Area	
Aichi	(22) Nagoya-Inuyama Area	
Mie	(23) Ise-Shima Area	
Shiga	(24) Biwako-Otsu-Hikone Area	
Hyogo	(25) Kobe-Himeji-Takarazuka Area	
Nara	(26) Nara-Hokuwa-Ikoma-Ikaruga Area	
Wakayama	(27) Kinokuni-Kuroshio Area	
Okayama	(28) Okayama-Kurashiki Area	
Shimane	(29) Matsue-Izumo Area	
Hiroshima	(30) Hiroshima Area	(31) Setouchi Chuo Area
Tokushima	(32) Tokushima-Naruto Area	
Kagawa	(33) Kagawa-Setouchi Area	
Ehime	(34) Matsuyama-Imabari Area	
Fukuoka	(35) Fukuoka-Chikushi Area	
Saga	(36) Saga Ceramic Valley Area	
Nagasaki	(37) Nagasaki-Unzen Area	
Kumamoto	(38) Aso-Kumamoto-Amakusa Area	
Oita	(39) Beppu-Yamanami Area	
Miyazaki	(40) Miyazaki Area	
Kagoshima	(41) Kagoshima Area	
Okinawa	(42) Southern-Okinawa Area	

3. 전문가의견조사서

한국의 관광도시 육성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관광부의 정책연구 기관으로서 도시의 관광을 진흥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광도시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엄선된 관광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관광도시 지정제도의 도입 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키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시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실현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의 분석자료**가 나오는 즉시 **선생님께 발송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12월23(목)까지 FAX(02-723-3016/5)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9년 12월
한국관광연구원
원장 이 연 택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설문서를 다운받아 E-mail 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연구원 홈페이지: www.ktri.re.kr

담당자: 산업정보연구팀장 김향자(T: 02-3704-0660, E-mail: hjkim@ktri.re.kr)

연구원 유지윤(T: 02-3704-0662, E-mail: jyyu@ktri.re.kr)

◆ 조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 관광도시 지정 목적: 매년 기초자치단체 중 한 도시를 관광도시를 지정하여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관광을 진흥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 본 연구과제의 관광도시 개념: 도시자체가 외부로부터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충분한 매력과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도시로서 관광도시 지정을 통하여 지역의 관광진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

※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이나 비판할 점이 있다면 기탄없이 적어주시시오.

I. 관광도시 선정대상 및 선정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관광도시 지정제도는 관광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해당 지역의 관광매력성과 유인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000년부터 한해에 한 지역씩 '2001년 관광도시'를 선정하여 관광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귀하께서는 관광도시 지정 대상으로 다음중 어느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 번호에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市·郡·區) ②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市(예: 수원시, 강릉시 등)
 ③ 기초지방자치단체중 市와 광역시(예: 수원시, 강릉시 등 +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등)
 ④ 기타(기입하여 주십시오)

2. 관광도시 선정과정에서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해당 번호에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전문평가단 구성에 의하여 직접 조사(후보지역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한 평가
 ② 전문평가단 구성에 의하여 간접 조사(후보지역의 관광도시 육성계획서 검토)를 통한 평가
 ③ 전문평가단 구성에 의한 직접조사와 간접조사의 병행 실시
 ④ 기타(기입하여 주십시오)

II.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 보기: 본 연구에서는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평가 대항목	평가 소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매력성 (자원성)	도시의 이미지	도시의 특징적인 이미지의 존재 여부 및 수준	상, 중, 하
	시설(문화시설, 위락시설 등)	관광시설의 총개소수	개소수/인구
	관광지	관광지의 총개소수	총면적/면적
경험제공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이벤트, 컨벤션 개최	이벤트 개최수 및 지명도	상, 중, 하
	여행상품 개발	여행코스(여행상품)	참여인원
	특산품 등 소품상품 개발	공인특산품의 종류 및 지명도	상, 중, 하
관광수용태세 및 접근성	향토음식의 개발	향토음식 개발, 전통음식집수 등	상, 중, 하
	관광숙박, 컨벤션 시설	숙박시설 개소수, 충수용인원 등	실수수용인원/인구
	안내정보, 관광편의시설	안내정보 시설 및 서비스 제공	상, 중, 하
진흥의지	접근성(관광교통시설)	공항, 도로, 철도 등을 통한 접근	상, 중, 하
	관련 예산편성	관광부문 예산	관광예산/총예산
	관련조직 구성	관광부문 인력	관광인력/총인력
잠재성	사업추진의지	계획의 여부, 충실도	상, 중, 하
	역사, 문화성	역사문화성 및 잠재성	상, 중, 하
	자연성	자연성 및 잠재성	상, 중, 하
	자원성	현대문화성의 잠재성	상, 중, 하

한 국 관 광 연 구 원

3. 귀하께서는 아래의 관광도시 평가기준에서 평가 대항목과 평가소항목은 각각 어느정도 중요
한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합이 100이 되도록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를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평가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할 것이 있다면 기타항목에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대항목	대항목 점수배분	평가 소항목	소항목 점수배분
매력성		도시의 이미지	
		시설(문화시설, 위락시설 등)	
		관광지, 관광자원	
		기타()	
		소계	100
경험제공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이벤트, 컨벤션 개최	
		여행상품 개발	
		특산물 등 쇼핑상품 개발	
		향토음식의 개발	
		기타()	
		소계	100
시설구비 (기반시설포함)		관광숙박, 컨벤션 시설	
		안내정보, 관광편의시설	
		접근성(관광교통시설)	
		기타()	
		소계	100
진흥의지		관련 예산편성	
		관련조직 구성	
		사업추진의지	
		기타()	
		소계	100
잠재성		역사, 문화성	
		자연성	
		자원성	
		기타()	
		소계	100
기타()			
		소계	100
총계	100	-	-

3-1. 귀하께서는 보기에서 제시된 관광도시 선정기준에서 소항목의 평가척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 관 광 연 구 원

7. 관광도시의 진흥을 위한 **행정지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중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시설 개보수관련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일괄처리 시스템 도입
- ② 관광도시 육성사업에 대하여 행정부서에서 인허가 업무대행
- ③ 각종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선정된 당해년도에 한함)
- ④ 기타1(기입하여 주십시오) ☐
- ⑤ 기타2(기입하여 주십시오) ☐

8. 관광도시의 진흥을 위한 **홍보지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중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지도 및 달력 등 홍보자료 제작지원
- ② 관광공사의 해외홍보자료에 선정된 관광도시 홍보
- ③ 관광공사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지원
- ④ 여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도시 설명회 지원
- ⑤ 기타(기입하여 주십시오) ☐

9. 관광도시의 진흥을 위한 **운영노하우 지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중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관광도시 운영계획의 수립지원
- ②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단 운영지원
- ③ 문화관광부 및 관광공사에서 수시 운영 모니터링
- ④ 기타1(기입하여 주십시오) ☐
- ⑤ 기타2(기입하여 주십시오) ☐

10. 귀하께서는 2001년 관광도시로서 어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곳 3곳을 적어주시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후보도시	추천이유

한 국 관 광 연 구 원

V. 제도 도입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귀하께서는 '올해의 한국의 관광도시' 지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 지역주민, 기업, 관광객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파급효과(긍정적)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항목별로 예측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시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용	파급효과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상)	도시 이미지 제고	①	②	③	④	⑤
	도시의 활력 제고	①	②	③	④	⑤
	지역경제 제고	①	②	③	④	⑤
	관련 시설 개선 및 확충	①	②	③	④	⑤
	정부의 재정지원	①	②	③	④	⑤
정부 (문화관광부)	지방관광 촉진 효과	①	②	③	④	⑤
	관광수용태세 구축 계기	①	②	③	④	⑤
	관광상품 개발계기	①	②	③	④	⑤
해당 지역주민	지방도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	①	②	③	④	⑤
	지방의 자긍심 제고	①	②	③	④	⑤
	주민소득 증대	①	②	③	④	⑤
	지역 생활관광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①	②	③	④	⑤
해당 지역내 기업	사업활성화를 통한 수익증대	①	②	③	④	⑤
	투자에 대한 자긍심: 지역발전을 도모함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기회	①	②	③	④	⑤
	기업의 홍보효과	①	②	③	④	⑤
관광객	지방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양질의 관광 서비스 제공받음	①	②	③	④	⑤
	선택의 다양성(다양한 관광상품)	①	②	③	④	⑤
	문화적 이벤트의 참여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IV. 개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곳은 어느 분야입니까?

- ① 정부(투자)기관 ② 관광산업계 ③ 관련 협회
 ④ 학계 ⑤ 연구소 ⑥ 기타()

♣ 귀하의 해당 분야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년)

♣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市·道) (市·郡·區)

한 국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구 원

연 구 진

김 향 자

현 한국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산업정보연구팀장)
경기대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졸업(관광학 박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졸업(조경학 석사)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유 지 윤

현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원
한양대 대학원 관광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양대 대학원 관광학과 졸업(관광학 석사)

한국의 관광도시 육성방안

발행인	이 연 택
발행처	한국관광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38, 내자빌딩 전화: 02-3704-0600 팩스 02-723-3015~6 http://www.ktri.re.kr
인쇄일	1999년 12월 30일
발행일	1999년 12월 30일
인쇄처	삼익인쇄사
